



The 8th ASIA Future Forum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폐회식 경품 이벤트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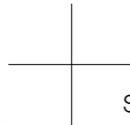
- 추첨시간 : 11/16(목) 16:40~17:00 노사정 공동선언 폐회식 이후
- 추첨장소 : 국제회의장
- 응모방법 : 일반참가자 목걸이 네임택 위쪽의 경품응모권을 절취하여 로비의 경품응모함에 넣어주세요.



1명
LG 올데이그램15 노트북



2명
삼성 기어VR 2017



3명

SKT 누구 NUGU 인공지능 음성인식 블루투스 스피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The 8th ASIA Future Forum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PROGRAM BOOK

세션 2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충남연구원
국제회의장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혁신

주최 | **한겨레신문사** 주관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후원 |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KOSIT 희망제작소 충남연구원 한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TNSR 복지국가연구센터 KLI 한국노동연구원 금융투자협회

협찬 | HYUNDAI MOTOR GROUP SK LG LOTTE POSCO GS칼텍스 emart Hyundai Oilbank KB금융그룹

KDB산업은행 SGI서울보증 SHINSEGAE S-OIL KOREAN AIR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금융그룹 LG디스플레이 LG하우시스 LG화학 대한제지 DX동국제강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 KCB 한국남동발전 K 한국수출입은행 여신금융협회 KGC인삼공사 행크

trueFriend 한국투자증권 한화 한화생명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YUNDAI STEEL Hyundai Card Hyundai Capital HYOSUNG

November 16 (Thu.)

2017. 11. 16(목)

국제회의장



The 8th ASIA Future Forum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혁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미디어 

아시아와 세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성장과 번영에 기여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하 한경사)이 주관하여 올해로 제8회를 맞이하는 아시아미래포럼은 '번영과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 찾기'라는 취지 아래 아시아 국가의 공통 과제를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10년부터 매년 늦가을에 서울에서 개최되며, 해를 거듭하면서 세계적인 석학, 정부 관료 및 정치 지도자, 시민사회 활동가, 기업인, 시민사회의 멘토 및 청년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모색하는 지식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미래포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영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좌교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양상우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조직위원

박영철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김종구 한겨레신문사 편집인

손경식 CJ그룹 회장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일의 미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향하여

우리 삶의 토대인 일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인구구조 변동에서 시작된 일의 변화는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한층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음식 배달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되는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어떤 직업은 새로 태어납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하는 시공간의 유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사의 고용관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선택폭을 넓히기도 하지만 사람이 기계에 일을 뺏기거나 노동이 파편화, 부차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일의 변화는 또 한 사업장에 고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기반으로 설계된 노동 관련법과 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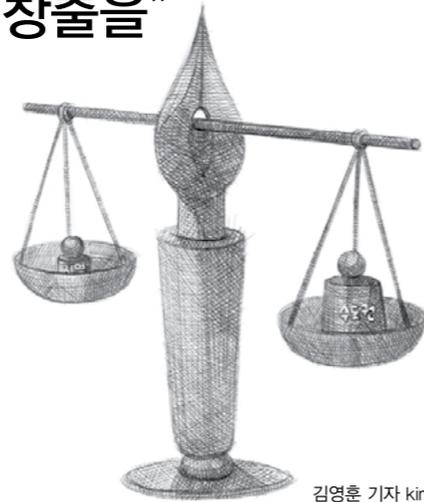
이런 일의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일'(Decent Work)인지 묻고 있습니다. 임금이 적절하고 지위가 안정적이면서도 자녀양육이나 재충전을 위해 자유로이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바라는 '좋은 일'일 것입니다. 미래 우리의 삶을 노동, 여가, 가정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이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일'로 디자인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장인 노동시간, 최저인 출산율과 결혼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과 생활이 이대로인 채 행복한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만족한 직원의 창의성과 생산성에서 발원되는 혁신이 우리 기업에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가 행복한 일상으로 이어지는 법적, 제도적인 변화를 논의할 때입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지, 생애주기에 맞춰 근무시간과 근무공간을 어떻게 유연화할지, 근무시간 단축 등에 맞춰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토론과 모색이 가능합니다. 독일은 '산업 4.0'으로 스마트 작업장을 구상하면서 동시에 '노동 4.0'으로 '좋은 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 '사람 중심 경제' 등 지속해서 대안 담론을 제기해온 아시아미래포럼은 올해 '좋은 일'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길을 찾아갑니다.

“주민 주도로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을”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세션 2.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혁신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 여파로 2020년까지 모두 7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신규 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낼 일자리는 200만개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기술혁신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기술혁신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우울한 예언이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직업군이나 일의 개념 규정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기존의 문법으로 잘 풀리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 맞서, 전에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것이 ‘사회혁신’이다. 그래서 혁신은 실패 확률이 높으며, 기존의 해법이나 방법론이 잘 통하지 않는다. 또한 이런 이유로 실험적인 정신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현장과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 오후에 열리는 분과 세션 2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 중심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가 ‘양적’ 확대에 치우치지 않고 ‘질적’으로 성장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사회혁신의 핵심은 사회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과정과 주체의 혁신을 통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참여가 사회혁신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시민과 그들이 모인 사회, 즉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지역 상황을 반영한 직업군 발굴, 주민 주도의 자치력을 높이며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첫번째 발제에 나서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산업, 향토산업, 지역산업 대부분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 환경에 개별적으로 생존하거나 소멸하도록 방치되어 왔다”며 고용 전략, 인재육성 전략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이 갖고 있는 장벽을 극복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 대책이 아니라 지역을 단위로 하는 고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주민 발의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 방식(Local Initiatives Program, LIP) 등 지역 중심의(localized) 일자리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지역사회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는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다양한 상상의 영역인 사회혁신 생태계의 속성상 실증적 측면에서 모호할 수밖에 없다. 사회혁신은 단발적 사업을 넘어 새로운 사회기술 시스템을 구현하는 실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 시스템으로 ‘민관공동생산시스템’을 제안한다. 민관공동생산시스템은 시민이 정책의 대상자에 머물지 않고, 입안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전 과정을 일컫는다.

이날 토론자로는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최선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나서며,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각자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보여주고, 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사회혁신 발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gobogi@hani.co.kr

〈한겨레〉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특집호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The 8th ASIA Future Forum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혁신

Contents

세션 2

| | |
|-----------------------|-----|
| 좌장 | 013 |
| 강현수 / 충남연구원장 | |
| 발제 | 014 |
| 배규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신동호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
| 김제선 / 희망제작소 소장 | |
| 사례발표 및 정책제안 | 070 |
| 김홍장 / 충청남도 당진시장 | |
| 토론 | 080 |
| 최혁진 /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 |
| 문보경 /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 |
| 이승원 / 사회혁신리서처립 소장 | |
| 최선희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 |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11월 16일(목) 2일차

세션2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혁신



| 좌장 |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 발제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 |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 사례발표 및 정책제안 |

김홍장
충청남도 당진시장



| 토론 |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 토론 |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 토론 |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 토론 |

최선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 시간 | 프로그램 |
|---------------|---|
| 13:30 - 16:30 |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혁신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충남연구원) |
| | 좌 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발 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연계 전략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 사례 및 향후 과제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지역사회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
| | 사례발표 및 정책제안 김홍장 충청남도 당진시장 |
| | 토 론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최선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
| | 종합토론 |

세션 2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충남연구원

국제회의장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혁신

좌장

강현수 / 충남연구원장

발제

배규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동호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제선 / 희망제작소 소장

사례발표 및 정책제안

김홍장 / 충청남도 당진시장

토론

최혁진 /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문보경 /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이승원 /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최선희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좌 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현재

충남연구원 원장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주요경력

2017 대통령 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2013 충남연구원 원장

2010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

2008 미국 MIT 대학교 객원연구원

2000 국토연구원 위촉연구위원

2000 영국 Oxford 대학교 객원연구원

1992 중부대학교 교수

연사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학력사항

영국 워릭대학교 산업경영학 박사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주요경력

2014 ~ 현재 한국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10 ~ 2014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2009 중국 인민 대학교(베이징) 방문연구위원

초록

지역산업-고용 연계 발전-내생적 발전 전략의 모색

한국에서 지역산업 발전, 특히 지역산업의 내재적 발전 개념은 낯설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산업 발전은 주로 전국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져왔고, 지역 발전과 연계된 지역산업 발전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에야 부각됐다. 더구나 지역산업-고용 연계 발전은 지역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 일본에서 제기된 지역소멸론(마스다 히로야, 2014)과 연계되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주된 관심은 지역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는 것인가에 모아진다. 우리나라 각 지역에도 적지 않은 전통산업, 향토산업, 지역산업 등이 존재하고 일정한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이들 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환경의 빠른 변화에서 체계적인 진화나 발전을 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생존하거나 소멸하도록 방치되어 왔다. 반면 각 지역의 주체들은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의 계기를 주로 대기업, 때로는 외국기업의 큰 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외부로부터 큰 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우제를 지내는 등의 노력을 하는 '천수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전략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각 지역의 산업-고용 연계전략을 추진하는 주체들이 천수답 전략보다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우선시하고 그에 치중해야만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에 관찮거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혁신역량, 흡수역량 등을 키울 때 외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투자도 더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지역의 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 집중화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에도 잘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구체화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 사례로는 이탈리아의 다양한 산업지구, 일본의 지역산업 발전과 고용창출 사례를, 국내 사례로는 충남 금산의 인삼 클러스터 사례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내생적 산업발전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고용 전략 그리고 그 결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발표자료

지역산업발전과 일자리 연계 전략

제8회 아시아미래 포럼
일의 미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향하여
2017. 11. 16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



목차

- I 문제제기
- II 지역산업발전과 일자리 전략
- III 지역에서의 시장실패과 거버넌스
- IV 지역 산업혁신-고용 연계
- V 지역 산업혁신과 고용 연계를 어떻게?
- 부록 지역산업과 고용 - 이탈리아/한국사례

I 문제제기

| 2016년 현재 | | | |
|-------------|--------|-------------|--------------------|
| 행정구역별 (시군구) | 연령별 | 인구(내국인 (명)) | 60세 이상 인구 비율(평균연령) |
| 전국 | 합계 | 4,548,051 | |
| 읍 단위 | 60세 이상 | 946,877 | 20.8%(40.9세) |
| 전국 | 합계 | 4,556,905 | |
| 면 단위 | 60세 이상 | 1,667,217 | 36.6%(49.4세) |
| 전국 | 합계 | 49,855,796 | |
| | 60세 이상 | 9,785,504 | 19.6%(40.9세) |

자료: 통계청, 2016. 지역별 고용조사

| 행정구역(시도) |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평균연령) |
|----------|---------------------|
| 계 | 19.6%(40.9세) |
| 서울특별시 | 19.3%(41.0세) |
| 부산광역시 | 22.2%(42.7세) |
| 대구광역시 | 19.6%(41.1세) |
| 인천광역시 | 16.8%(39.9세) |
| 광주광역시 | 16.9%(39.1세) |
| 대전광역시 | 16.8%(39.2세) |
| 울산광역시 | 15.1%(39.0세) |
| 경기도 | 15.2%(39.3세) |
| 강원도 | 24.2%(43.2세) |
| 충청북도 | 21.3%(41.5세) |
| 충청남도 | 22.4%(41.6세) |
| 전라북도 | 24.7%(42.9세) |
| 전라남도 | 27.8%(44.6세) |
| 경상북도 | 25.2%(43.6세) |
| 경상남도 | 20.5%(41.3세) |
| 제주특별도 | 19.8%(40.5세) |

- 전반적 고령화 속 도시(대도시 - 읍 단위) vs 농촌(면 단위) 고령화에서 상당한 차이
-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국이 19.6%인데 비해, 전국의 읍단위는 20.8%, 전국의 면 단위는 36.6%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이 전국적으로 40.9세 이고, 대도시를 제외한 도 단위는 경기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41.3세부터 - 44.6세. 전국 면 단위 평균은 49.4세가 될 정도로 높음.

I 문제제기

- 농촌과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활력감소, 일부 소멸위기 -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젊은 층의 감소로, 점차 소멸위기
- 일본의 지역소멸론 - 20~39세 여성이 일정 비율 이하로 줄어든 지자체는 35년 뒤 소멸가능성이 높다는 지역소멸론 대두
- 한국에서 젊은층 인구가 도시에 몰림. 고학력 젊은 층들에게 지역 일자리가 매력 없기 때문에 농촌, 지방에서 젊은이 이탈.
- 앞서 본 것과 같이 현재와 같은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경제구조, 일자리 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도 농촌은 물론 지방 읍, 소도시의 급격한 고령화, 인구감소로 군 단위의 지역소멸론이 현실화 가능성
-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갈 만한 괜찮은 일자리는 지역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음. 지역산업은 청년들이 있어야 개선되고 혁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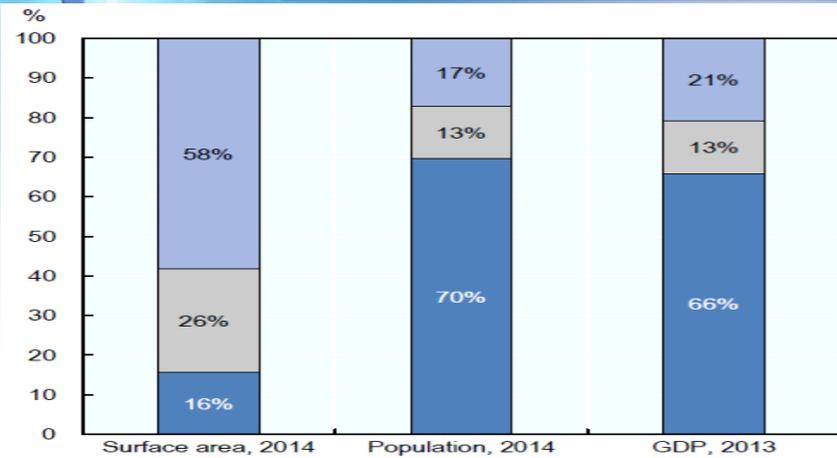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 악순환 구조
지역산업의 활력감소 ⇨ 좋은 일자리 부족 ⇨ 청년들의 지역 이탈 ⇨ 청년인력 부족 ⇨ 지역산업 정체 혹은 쇠퇴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 선순환 구조
지역산업의 활력 ⇨ 좋은 일자리 창출 ⇨ 청년들의 지역잔류 ⇨ 청년인력들의 개선/혁신역량 발휘 ⇨ 지역산업 발전

I 문제제기

- 주요 농촌지역
- 중간지역
- 주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중간지역, 농촌지역 간의 격차
- 면적, 인구, 소득



자료: OECD, Korea, in OECD Regional Outlook 2016: productivity regions for inclusive societies

II 지역산업발전과 일자리 전략

■ 현재까지 지역산업과 일자리 정책의 초점

○ 국내외 대기업의 투자 유치

- 얼마나 성공했는가? 어떤 산업에 몇 건, 얼마의 투자금액을 유치?
- 국내외 대기업이나 대자본의 투자에 따른 효과 - 지역의 다른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지역에 만들어진 일자리 수,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에 직접 도움?
- 지역에 투자한 국내외 대기업으로부터 지역민들이 학습, 내적 역량강화 도움을 받았는가?
- 해당 투자를 통해서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지역 내에 분배되었는가 아니면 외부로 유출되었는가?

○ 지역 소재 중소기업/자영업의 산업, 업종별 진화, 발전, 혁신

- 지역에 특화된 산업, 업종, 제품은 없는가? 전통적인 산업, 향토산업은 없는가?
- 그동안 어떤 노력이나 발전이 있었는가? 어떤 산업, 업종,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의 발전, 진화, 혁신이 이루어졌는가?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했는가?
- 그런 진화, 발전,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R&D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품개발, 품질개선, 마케팅, 공동브랜드, 판로개척
- 중소기업/자영업들의 발전, 진화, 혁신을 가져오기까지 필요한 내부 숙련인력의 훈련, 교육, 노하우 개발과 전수 등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 본 발표문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반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II 지역산업발전과 일자리 전략

■ 지역산업발전과 일자리 전략 - 두 가지 접근법

- 천수답 전략: 국내외 대기업의 크고 과감한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내생적 발전전략: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산업 중 내생적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업종의 집단적 진화, 혁신 추구를 통한 일자리 전략

■ 두 가지 접근법의 장/단점

- 천수답 전략 - 국내외 대기업의 크고 과감한 투자 유치
 - 장점: 빠르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며, 손쉬움, 사후 학습 가능
 - 단점: 지역의 협업과 분업을 통한 전후방 효과 부재, 실제 지역 내 확산효과 적고, 수익의 외부유출
- 내생적 발전전략 - 지역 내 중소기업/자영업의 산업, 업종별 집단적 발전, 진화, 혁신
 - 장점: 지역 내 협업과 분업을 통한 전후방 효과가 커서, 수익의 지역 내 환류와 확산효과가 큼, 내부적 혁신/흡수역량의 축적, 중장기적 투자 유치 가능
 - 단점: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산업의 내생적 발전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속적 노력과 시행착오 필요
- 두 전략의 결합 가능성 - 내생적 발전을 위한 혁신/흡수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곳에는 외부기업들의 투자가능성이 높아짐 - 독일

III 지역에서의 시장실패과 지역거버넌스

■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지역의 개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산업/업종의 혁신에 필요한 수준의 연구개발에 투자를 할 수 없음. 투자시 다른 중소기업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지역의 개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시장에서 경쟁 상황(경쟁제품, 시장의 변화, 경쟁사업자들의 노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함.
- 지역의 개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렵게 키워낸 숙련인력을 붙잡아 둘 정도의 매력 있는 보상이나 미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능력구축 미약(weak capacity building)

- 지역의 주요 생산물의 품질제고, 개선경험을 축적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노하우나 암묵지 축적의 실패(파편화된 경험, 노력 미약)
- 외래 기술의존적 산업화로 지역의 내부역량, 능력구축, 전통적 방법개발 노력을 통한 성공경험 부재, 장인적 전통 취약, 과학적 접근과 사고방식의 미약
- 느슨한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는 존재하지만, 긴밀한 협업과 분업의 네트워크를 갖춘 클러스터나 산업지구 부재(집단적 협력, 발전, 진화, 혁신 경험의 부족)

■ 국가의존적 지역산업

- 지역산업/기업들은 금융, 시장, 제품개발, 인력양성에 이르기까지 국가의존적 태도

III 지역에서의 시장실패와 지역 거버넌스

■ 거버넌스(governance)란?

- 일정한 조직이나 지역에 대해 정부, 시장, 네트워크가 법, 규범, 권력, 언어 등을 통해 다스리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결정과 운영시스템 전체를 말함.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지방/지역(local/regional) 지배구조(governance) 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청, 시청)와 도·시의회는 정치적 지배구조(political governance)이며, 지역 산업과 고용은 지역상공회의소 등 기업인 단체, 자영업자단체, 지역주민, 노조,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역조직

○ 지역(산업과 고용) 조직은 하나의 거버넌스

- 가령, 마을어촌계/상인회/공판장도 마을의 어업/상업/농업을 관장하는 하나의 거버넌스, 지역 한우협회나 **시장상인변영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존재
- 다만 조직이 존재하는 것과 조직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별개
-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역산업과 관련된 조직들이 단순히 이익방어적 목적,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될 뿐

○ 지역(산업과 고용) 거버넌스의 역할

- 무엇을 해왔는가, 무엇을 하려하느냐가 중요함.

IV 지역산업혁신 - 지역 클러스터

■ 지역 클러스터 (OECD, 2011. OECD Review of Regional innovation)

-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지리적 집중(geographical concentration)
-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전문화(specialization)(공통적인 제품, 시장, 기술)
- 중소기업과 다른 기관들(연구기관, 훈련기관, 공공기관, 중계자, 금융기관, 규제기관)의 병존
- 연결성(connectivity)(지역 내 경제주체들 사이에 긴밀한 상호관련)
- 구조적 특징(장기적인 생산의 조직)
- 결정적 다수(critical mass): 어느 나라나 지역경제에서 일정한 비중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수의 기업/자영업자들 집합
- 혁신의 중요성: 기술적 혁신, 조직적, 상업적 측면의 혁신 포괄.

■ 지역 클러스터의 내재적 발전

- 지역생산시스템의 중심은 지역산업을 담당하는 기업간 네트워크.
- 지역산업 네트워크는 생산기업, 자원(인적, 자연적, 인프라), 경제적 활동(생산적, 상업적, 기술적, 재정적, 사회적, 법적) 그리고 상호관계(상호의존성, 교환)로 구성.
- 경제적 성장과 생산의 동학은 혁신과 지식의 도입·확산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혁신은 경제행위 주체들의 집단적 학습과정을 뜻함.
- 학습과정은 인간에게 체화된 암묵지와 공식지, 생산방법(재료, 양, 절차와 공종)이 주체들 네트워크 내에서 확산되는 과정.

IV 지역 산업혁신-고용 연계

지역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를 통한 내재적 발전

○ 규모경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소기업, 자영업자

- 지역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각종 제품과 서비스생산에서 대기업과 같이 자본조달능력,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개발능력, 제품의 품질관리능력, 시장개척과 시장지배능력, 인력훈련과 관리능력, 다양한 원재료나 자재를 공급하는 하청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함.

○ 자연스런 산업클러스터 형성

- 지역에서는 농축산물, 수산물, 각종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상품화하고 판매하는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음. 농축산물, 수산물 제품군 및 서비스의 종류별로 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일정한 업종 형성.
- 같은 산업, 업종, 분야의 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상호 경쟁하기도 하지만 공동운명체 성격. 함께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생산이나 서비스방법을 서로 배우고, 시장규모가 성장하면 같이 발전하고 시장이 축소되거나 폐쇄되면 함께 어려움을 겪거나 망하기도 함.

○ 중소기업들의 개별적인 접근 한계

-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다수의 소기업, 자영업자가 지역적으로 몰려 있는 곳에서는 작은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는 개선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기는 곤란.
- 소기업, 특히 자영업자들은 제품개발, 차별화된 제품 생산, 서비스 개발, 서비스 차별화와 이를 위한 연구개발, 브랜드 만들고 알리기,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체계적인 품질관리,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체계적인 교육훈련, 필요한 사업서비스의 이용,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 등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

IV 지역 산업 혁신 - 내적 흡수역량

지역·조직의 내적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

○ 내부적 흡수역량이란?

- 기업이나 조직이 외부의 지식, 경험을 획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말함.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나 거듭된 경험, 학습을 통해서 축적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어느 조직(기업)이나 지역이 스스로 전혀 새로운 것(아이디어, 제품, 소재, 공정, 서비스 내용) 등을 창조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따금씩 일어남. 대부분은 다른 나라, 지역, 조직(기업)이 이미 앞서서 해놓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학습능력, 흡수역량임.

- 조직(기업)이나 지역의 혁신역량은 창조적 역량이라기보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사레나 경험들을 배우고 흡수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흡수역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내적 흡수역량이란 지역이나 조직이 갖고 있는 내부 실력을 반영하는 것임.

- 내부적인 실력의 축적이 없이는 지역, 조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세 가지 방법의 외부지식과 경험 학습

- ① 수동적(passive) 학습: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기술적 경영적 과정(technical and managerial processes)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등을 획득.

- ② 능동적(active) 학습: 직접 쫓아다니면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이나 배우려는 기업.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적능력(competitor intelligence)을 포괄하는 학습.

- ③ 상호적인 획득(interactive): 다른 조직의 공개된 지식이나 기술이라는 '무엇이라는 지식'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과 관리과정의 암묵적인 요소(tacit components)인 '어떻게, 왜의 지식'도 파악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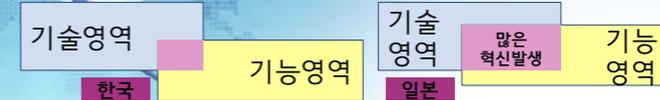
IV 지역 산업혁신 - 내적 흡수역량(adoptive capacity)

□ 지역이나 조직의 흡수역량의 구성요소(세 가지 능력)

- ◇ 새로운 외부 지식을 인식하고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 스스로가 외부조직(기업)의 새로운 지식에 대한 기반지식(과학적, 기술적, 학문적 지식 ('know what')이 있어야 새로운 외부지식을 인식하고 새로운 지식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음
 - 이것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거나 사전기반지식의 중요성을 뜻함. 무언가를 해보려했던 경험, 노력이 있을 때 더 빨리 어떤 외부지식이 필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지식인지 판별할 수 있음.
 - ◇ 새로운 외부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 능력:
 - 배우려는 조직(기업)이 외부 조직(기업)의 암묵적인 지식창출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가능함. 즉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고, 저장하며 전환하는지에 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 ◇ 새로운 외부지식을 상업화할 수 있는 능력:
 - 배우려는 조직(기업)이 외부 조직의 상업적 목표와 유사성을 갖고 있어서 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유사한 경험이 많을수록 흡수한 지식을 쉽게 상업화시킬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외부지식의 흡수는 아무 조직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의 유사성, 지식공시시스템의 유사성, 지역이나 기업의 조직 구조와 관행의 유사성에 따라 달라짐. 특히 같은 산업·업종의 유사한 직종, 제품군, 서비스군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IV 지역산업혁신 - 일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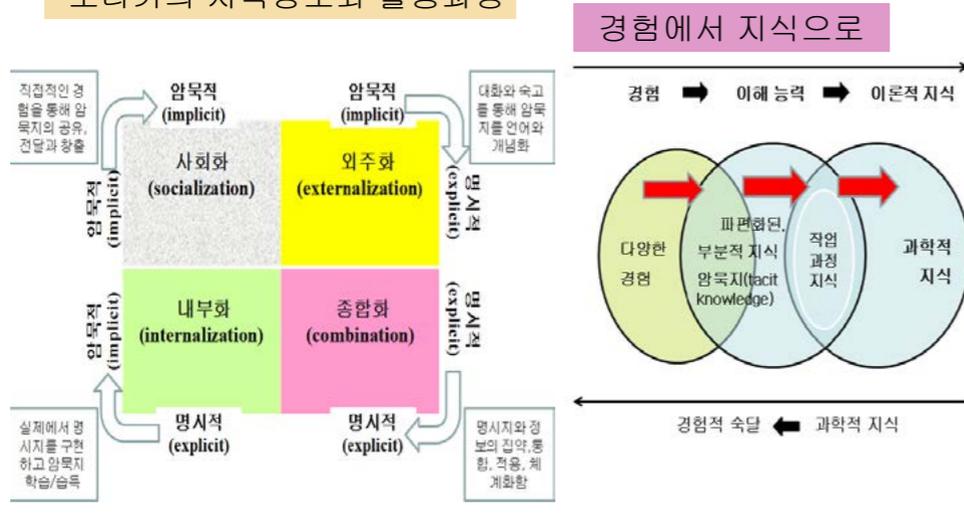
- 일본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 생산영역에서 작고 점진적 개선을 축적해 큰 개선과 혁신을 이룸(일본은 베끼는데 능하다는 편견!!), 서유럽이나 미국과 다르게!!
- 외부의 지식을 내부화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능함
- 일본인들은 자기가 맡은 작은 분야에서의 헌신(오타쿠 정신)
 - ◆ 젓가락 장인의 이야기 - 온갖 디자인, 재료로 일본 최고의 젓가락 만들기
 - ◆ 부채, 센베이 과자, 일본술, 찹쌀떡을 비롯한 일본과자(화과자)의 다양성, 지역적 특색
 - ◆ 한국의 예 - 김치의 다양화, 재료, 양념, 맛의 다양화, 지역화



- 실제로 해 봄으로써 터득하거나 경험을 축적해야 알게 됨(명시지와 암묵지 learning by doing) - 시행착오없이 암묵지 습득은 없음.
- 기술(대졸 engineering) + 기능(고졸 technics, manual skills) 사이의 경계
- 일본의 매뉴얼 만들기 - 온갖 분야에서 축적된 암묵지(노하우, 지식, 방법, 경험)
- 일본 엔지니어들의 기업 적응과 학습, 훈련(현장부터)
- 일본의 OJB(on-the-job training)의 중요성 - 사수로부터의 암묵지 학습, 훈련
- 낳아준 부모와 교육/훈련해 준 부모 - 일본의 장인정신
- 예) 우동국물 내는 법, 가업이나 사업의 승계(자녀승계보다는 후계자 승계)
- 구상 설계는 기술영역과 기능영역을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가능함

IV 지역산업혁신 - 지식경영 - 일본 사례

노나카의 지식창조와 활용과정



V 지역 산업혁신과 고용 연계를 어떻게?

반공공재(semi-public goods)생산을 위한 지역서비스센터

- 지역의 내적 혁신역량 부족
 - 지역 내 지역산업을 담당하는 사업자들이나 사업자 단체들의 혁신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매우 낮은 수준. 사업자 단체들의 체계적인 혁신과 개선을 위한 노력도 낮은 수준임. 혁신, 개선이 있었다라도 그 실적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지역 내 지역산업과 고용 혁신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사업자 단체, 개별 연구자, 전문가들에 맡겨두기 어렵고 이들 조직에서는 혁신과 개선의 마인드, 역량, 노력이 부족하며, 도가 지역 산업과 고용을 혁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불가능함.
- 지역서비스센터를 통한 반공공재(semi-public goods) 생산
 - 지역산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 시장조사, 연구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박람회 공동참가 및 조직화, 지역산업을 요구하는 사업서비스 중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것 제공
 - 사업개발서비스센터
 - (1) 제품시장 정보, 디자인, CAD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
 - (2) 시장리서치, 수출촉진, 무역박람회의 조직화 등과 같은 마케팅서비스
 - (3) 신기술에 관한 정보, 연구개발 프로젝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실행, 품질인증,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 등과 같은 기술적인 서비스
 - (4) 관리자, 기능공, 엔지니어, 훈련교관 등을 위한 직업훈련과 교육
 - (5) 투자기획, 법적 지원, 회계지원, 특허등록과 같은 사업관리서비스

V 지역 산업혁신과 고용 연계를 어떻게?

반공공재(semi-public goods)생산과 혁신지원기구로서 지역혁신센터

○ 지역산업-고용혁신센터 필요

- 지역 산업과 고용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전략적인 수준에서 추진되기 위해서 새로운 연계를 할 수 있는 혁신 거버넌스 구축 필요
- 혁신 거버넌스는 지역의 지역 산업/고용 혁신센터(regional innovation agency)로 만들어 혁신마인드를 가진 전문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을 네트워크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관련 부서나 혁신책임관, 테크노파크/공공지원기관/사업수행기관, 산업-업종별 사업자 단체, 대학 등 학계, 직업훈련기관 및 지역의 근로자 단체 등이 연계되어 함께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 지역의 산업-업종에서의 혁신(제품과 신서비스 개발, 제품혁신, 서비스 혁신, 제조공정, 서비스 생산공정의 혁신, 품질관리, 지역이나 시장의 새로운 공간적 배치와 개발 등) 책임

○ 지역산업-고용 연계 전략

- 지역산업은 지역의 혁신/흡수역량 있는 인력을 통해 혁신할 수 있음. 지역 산업혁신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산업 혁신과 고용은 긴밀하게 연계돼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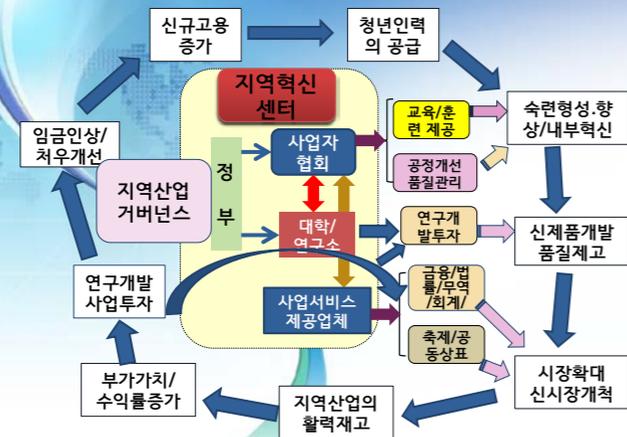
V 부 록

부록 1 - 이탈리아 산업지구 사례

부록 2 - 금산인삼클러스터 사례

V 지역 산업혁신과 고용 연계를 어떻게?

지역산업혁신과 고용창출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구조 지역산업-고용의 연계네트워크: 지역산업발전과 고용증가의 다이내믹스



지역산업과 고용 - 이탈리아사례

◆ 왜 이탈리아인가?

- 이탈리아는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진화, 개선, 혁신을 거듭해 옴. 중소기업들의 연합체가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
- 미국 MIT대학의 piore and Sabel(1984)은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라는 이름으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에 (중)소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론화
- 이탈리아는 이들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진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s)의 내부적 진화, 혁신, 개발, 외부적 지식의 흡수를 이용한 **내생적 성장** 경험을 통해 수십년 동안 검증된 이탈리아 제품의 성공을 가져옴.
- 이탈리아는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산업지구로 모여 있으면서 내부에서 긴밀한 분업과 협업관계(하청과 부품공급)를 형성한다. 특정제품중소기업들은 협회(Associations)를 만들어 교육과 직업훈련, 시장조사, 품질관리, 제품개발, 공동브랜드개발, 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반공공재(semi-public goods)를 생산해 왔음.
- 수많은 다양한 고품질 제품들을 틈새시장을 겨냥해 특화하여 생산하는 이탈리아 산업지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탈리아 경제의 근간.

지역산업과 고용 - 이탈리아 사례

- 이탈리아는 인구가 6,067만명(2015년), 1인당 GDP가 30,231달러 수준

-이탈리아 경제는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큰 규모이고, 세계 8위의 경제 선진국이며 세계 6위의 제조업 국가임.

- 이탈리아는 20개 지역(5개는 특별자치지역) 그리고 14개 대도시와 96개 지방, 8047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가장 잘 사는 지역은 북부 Lombardy 지역으로 수도인 Milan이 있음. 인구는 1천만명. Venice가 있는 Veneto 지역에도 인구가 493만명, 볼로냐가 있는 Emilia-Romagna 지역도 인구가 445만, 튜린이 있는 피에르드몬트 지역도 인구가 442만명으로 북부의 대표적으로 잘 사는 지역임.

- 이탈리아는 1년에 약 45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나라로 수입은 455억불에 달함.



지역산업과 고용 - 이탈리아 사례

| 음식 | 산업지역 | | 산업지역 | | 산업지역 |
|-----------|---|------|---|------|---|
| 어류 | Sicily(134개사, 2,200명 고용, 46개 기관, 협회, 대학, 연구센터) Rovigo(230개사, 3,500명 고용, 5억유로매출) | 섬유 | Prato, Lecco Silk, Schio-Valdagno, Biella (cashmere, alpaca, mohair) (1,300개사, 25,000명, 43억유로, 산업용 2,000명, 3억유로) | 악세서리 | Gemini - 단추/지퍼/허리띠, 벨지, Val Calepio "단추 Valley" (150개사, 2000명 고용, 연 2.5억 유로 매출) |
| 커피 | Trieste(900명, 5억 유로) Genoa (20 +700개사) | 보석가공 | Valenza Po's Craft (1,300개사= 900 생산+400 판매) Vicenza(1,000개사, 11,000고용, 33억유로)(총 1만개사, 112,000명 고용, 40억 유로 수출, 매출) | 대리석 | Valpolicella, Verona (500개사, 연 20억 유로 매출), Apuan Alps, Tuscany (6,000명 고용, 연매출 12억 유로), -Trentino, Botticino(500개사, 3천명고용, 1.5억유로) - Liguria(150개사 1억 유로) |
| 포도주 | Conegliano-Valdobbiadene, Genoa(전체 80억 유로매출) 증류주/독주포함 매출 연 500억유로 | 금 | Arezzo(1,100개사), Vicenza, Valenza Po Naples(연 매출 70억 유로) | 솔/빛 | SME 중심 2.2억 유로) |
| 식품 | 전체 324,000개사, 40만 고용, 1190억유로 매출액 | 가죽 | Montecchio/Valle Del Arzignano(482개사, 8,350명, 18억 유로매출), Venetian, Santa Croce Sull'Arno(1,400개사, 1만명) / Chaimpo | 자기 | Sassuolo's Ceramic Tile(24억 유로 수출),4개도자기(600개사, 4,000명고용, 연 3억 유로매출) - Caltagirone, in Sicily, Vietri sul Mare 등 - Caltagirone 도자기 (150개사, 600명 고용) |
| 햄 | Prosciutto di San Daniele (460 양돈농가, 65개 도살장, 650명 고용, 3.3억 유로), Salami | 스타킹 | Catereffredo, Mantua 280개사, 6,600명 고용, 연매출 12억 유로 | 안경 | Belluno(4개 대기업, 170개사, 13,500명, 연 2억 유로) (전체 1,100개사, 18,000명 고용, 25억유로 매출) |
| 원예 | Western Liguria(꽃씨) Sanremo(7천개사, 27,000명 고용, 연 6억 유로) | 모자 | Montappone, Ascoli Piceno, Marche (80개사, 1,500명 고용, 연 1억5천만 유로 매출) | | |
| 토마토 | Salerno, Emilia-Romagna, Lombardy, Piedmont(연매출 14.5억 유로) | | | | |
| Olive Oil | Liguria | | | | |

지역산업과 고용 - 이탈리아 Veneto 사례

Veneto 지역의 산업지구 숫자와 구성

| | Number of clusters | Enterprises (a) | Employees (b) | b / a |
|----------------------------------|--------------------|-----------------|---------------|-------|
| Food industries | 4 | 1,032 | 25,689 | 24,9 |
| Plastic, rubber | 1 | 214 | 14,233 | 66,5 |
| Jewellery | 2 | 296 | 18,014 | 60,9 |
| Leather, shoes | 3 | 461 | 16,638 | 36,1 |
| Furniture | 5 | 849 | 15,928 | 18,8 |
| Primary sector | 3 | 773 | 12,066 | 15,6 |
| Textiles, clothing | 3 | 426 | 18,150 | 42,6 |
| Mechanics & tech | 11 | 1,934 | 91,327 | 47,2 |
| Tertiary sector, environ/culture | 11 | 3,831 | 78,615 | 20,5 |
| Paper | 1 | 154 | 6,506 | 42,2 |
| TOTAL | 44 | 9,970 | 297,166 | 29,8 |

Source: Veneto Region - Cluster office

지역산업과 고용 - 이탈리아 사례 1

| 기기류 | 산업지역 | | 산업지역 | | 산업지역 |
|-------------------|--|------------|---|---------|--|
| 가정용 수도꼭지와 부속품, 밸브 | Maggiore, Piedmont (400개사 8,000명 고용, 연 30억유로매출, Brescia District(수압밸브 300개사 6,000명 고용 연 30억 유로 매출) | 식당용 기기생산 | Veneto(대형냉장고), Friuli (공장형 식당용 냉장시스템), Emilia-Romagna (식품보전과 썰기기계류)(2004년에 연 40억 유로 매출) | 의자 | Manzano, Friuli(1,200개사, 15,000명 고용, 연 매출액 20억 유로) - Udine(1,200개 회사, 약 4,000명 고용) |
| 조선 | 요트(La Spezia)(22개사), 유람선(Marches) (300개사, 5,000명고용) | 산업용 종이 | Inox Valley(Treviso, Belluno) (1,000개사, 1만명 고용) | 램프 | Lombardy, Veneto |
| 조선기자재/부속품 | Friuli-Venezia Giulia 7,000명 고용, 연 9.25억 유로 매출 | 식탁용칼/가위/포크 | Maniago(칼)(150개사, 2천명), Premana (가위)(40개사, 200명) (연 1.3억 유로) | 디자인 | 'metadistrict', Lombardy, Milan(독립전문가, 기업 디자인 부서 고용을 합해2만명 고용, 연간 100억 유로매출) |
| 슈퍼밸브 | Colico in Lecco 포함 (15,000명 고용, 연 40억 유로 매출) | 산업용 유리기계생산 | 베니스 등(연간 8.3억유로매출) | 놀이동산 | Bergantino(100개사, 1500명 고용, 연 1억5천만 유로 매출) |
| 육실액세서리 | 300개사, 연간 매출액 20억 유로 | 유리 | Murano(260개사, 2,000명 고용, 연간 1억 유로), Valdelsa(45개사 2,000명 고용, 연간 2억 유로 매출) | 금속기계류생산 | Pianezza, Pinerolo in Piedmont (3000개사, 24,000명 고용)(조선기자재, 문손잡이, 자물쇠, 공작기계, 부품 등) |
| 매트리스 제조 | 고급매트리스제조(400개사, 2,500명, 연 3.85억 유로매출) | | | | |

지역산업과 고용 - 이탈리아 사례 1

산업지구 지원시스템

◇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

- 이탈리아의 무역박람회(trade fairs)수는 연간 1,000여회 이상인데, 195개가 국제적인 박람회/전시회, 422개가 이탈리아 전국박람회, 113개가 지역박람회/전시회
- 이탈리아가 무역박람회에서는 세계 2위 - 최근에 Fiera밀라노 전시센터 건립
- 이탈리아의 금세공과 보석세공업은 Vicenza에서 세 차례, Arezzo에서 1회, Valenza Po에서 1회 전시회가 열림. Vicenza에서 1월 열리는 전시회에는 1,500개 회사가 참여.
- 밀라노에서 4월 열리는 국제조명박람회인 EuroLuce도 약 3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행사로 이탈리아 조명회사들이 신제품을 출품하면서 자신들의 제품경쟁력을 자랑하여 구매자들을 끄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 사업개발을 위한 사업지원서비스

-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56개 산업지구에 130개 사업서비스센터 존재 확인
- 사업지원서비스는 개발적인 성격 때문에 이익목적의 시장에서 제공하기 어려움
- 신용보증, 수출보험이나 촉진, 박람회 개최, 시장/기술진화에 관한 정보접근, 고객평가, 컨설팅, 훈련, 쓰레기처리, 오염통제, 품질인증, 제품판촉, 혁신지원, 재료의 대량구매, 제품테스트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사업서비스센터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산업지구내 기업들의 필요에 맞춤형서비스, 내재화된 자율성의 획득, 산업지구의 지배역량(governing capacity)의 강화라는 특징 공유
- **의자산업지구의 Promosedia** - Manzano의자산업지구의 100개 의자제조회사들의 공동으로 소유한 수출지원기구로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83년 설립.
- 중장기적인 목표는 의자제조업체들이 부가가치사슬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것 지원
- Udine 의자전시회의 매력을 높여서 전세계 의자생산자와 구매자들을 위한 중요한 만남의 기회로 전환
- 이 기구의 노력으로 1983년 방문자수가 3,000명에서 1997년 15,000명으로 5배 증가, 15년간 생산의자수의 폭발적 증가(4천만개)
- **Carpi Knitwear 지구 서비스센터(CITER)** - 지역개발국, 지구생산자협회, 약 500개 중소기업의 공동소유
- 역할 - 섬유산업에서 패션의 진화,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 하청업체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방대한 지식 접근 가능케 함. 1970년대 말 성공적 훈련사업 이후 1980년 설립.

지역산업과 고용 - 이탈리아 Sassuolo Tile District 사례

◇ 사수올로 지구의 자기타일(ceramic tile) 산업

- 전 세계 자기타일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함.
- 사수올로 자기타일은 고품질,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
- 특히 내성이 있고 다양성, 크기, 색깔, 그리고 장식, 스타일, 디자인, 그리고 혁신역량, 첨단생산 기술 포용역량은 특별 장점
- 자기타일산업은 Sassuolo/Fiorano가 중심, 모데나(Modena)의 다른 5개 도시에서도 자기제품 생산사이클에 관련이 있는 산업들이 발전
- 사수올로 기업들은 더 나아가 부가적 제품생산부문에 투자, 자기타일산업에 필요한 기계류 생산, 부가서비스의 관리, 무엇보다 응용 연구분야의 중심지가 됨.
- 이탈리아 타일의 80%가 사수올로 지역에서 생산되고, 생산된 자기타일의 4/5는 바닥타일, 나머지는 덮개로 사용됨.
- 소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접근이 주로 제3자를 통해서 특히 장비제조업체나 각종 자재나 부품공급회사들을 통해서 이뤄짐. 특히 같은 제품브랜드의 제품을 거래하는 관계에서 활성화.
- 과거 국제타일시장에서는 바닥면적 넓이단위로 타일 판매. 이제는 자기타일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내부장식 전체 solution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식으로 진화함.
- 사수올로 자기지역은 같은 생산사슬에 속한 기업들 사이에 강한 네트워크 관계와 이들 회사 사이에 경쟁시스템 때문에 고도의 품질을 유지해 성공적이었음.
- 자기타일 회사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모여 경쟁하고 함께 자재를 공급받아 제품혁신에 투자해 국제적 경쟁자보다 앞서 신제품 개발가능.
- 이 지구에서 대기업이면서 선두기업은 Marazzi(8,000명 고용)라는 곳. 대학과 협력을 통해 기술협력을 하고, 사업의 국제화에서도 앞서 나감.

지역산업과 고용 - 이탈리아 Sassuolo Tile District 사례

◇ 사수올로(Sassuolo)지구의 입지

- Emilia-Romagna 지역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음.
- 1950년대 말 풍부한 진흙원재료, 주변 농촌에서 인력충원, 자기(ceramic)공장과 관련된 공학의 탄생 등 여러 요소들의 결합으로 탄생.

◇ 사수올로 지구의 자기타일(ceramic tile) 산업의 구성

- 300개 공장을 가진 114개 자기(ceramic)회사 중 99.8%가 중소기업이고 20,4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43억 유로(5조 4,5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 2012년 24억 유로(3조 2,500억원)의 수출.
- 자기타일생산과 나란히 원자재 공급회사, 제품기술과 서비스 등도 자기타일의 제조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해왔음. 예를 들면 에나멜과 페인트, 풀(glue), 포장, 전문화된 기술자문서비스제공회사, 그래픽과 디자인, 마케팅, 창고와 운송, 법과 보험서비스업 등.

◇ 타일/내화성자재제조기업연합의 역할

- 관련회원사(자기타일과 내화재의 생산에 보조적인 산업활동 기업) 포함
- 회원사의 대변, 지원, 정보제공, 연락
- 자기타일생산의 산업표준을 정하는 조직, 자기타일 품질을 인증하는 기구 등과의 관계 조정
- 대학이나 연구소들과 함께 자기제품과 생산과정의 지속적 혁신 추구.
- 볼로냐 대학과 대학 내 이탈리아 자기기술연구센터가 협력관계.
- 모데나, Emilia지역대학 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신규인력과 대졸자들을 위한 전문화 교육 책임.

지역산업과 고용 - Emilia-Romagna district 사례

Emilia-Romagna 소기업협회(C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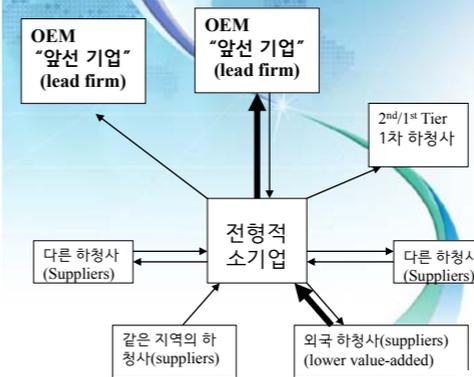
- 군 수준 조직의 도별 연합회
- 모든 마을에 사무소 개소
- 중심 도시인 Bologna 소기업 협회에는 16,000명의 회원 가입
- 회원사에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600명의 직원

이탈리아 산업지구 모델의 성공

- 소기업들이 서로 네트워킹하고, 혁신하고, 세계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
- 부가가치를 낳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협회
- 기업-노조-정부의 협력파트너십
- 세계적인 인프라스트럭처
- 생산성의 요소로서 사회적 서비스 제공
- 기업가들의 품질, 혁신, 공동체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몰입과 약속

도지역 수준의 정책

- 정책결정자들은 산업지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해 안내를 받고 있음.
- 사회적 파트너십이 명시화돼 있음.
- 효과적인 정책의 사례
- 산업부문에 특화되거나 특정산업을 벗어나 일반적인 사업서비스센터
- 도지역의 혁신센터들
- 네트워크 실험실(공간)을 통한 기술전수
- 필요한 엔지니어나 연구자 채용 지원
- 민관협력으로 소기업 벤처자본금 설립
- 네트워크 창출을 위한 시작비용의 지원



자료: Hancock, Matt 2016. Flexible Manufacturing Networks of Emilia-Romagna

III 지역산업과 고용 - 이탈리아 사례

이탈리아의 산업 지구 (Italian Industrial Districts)

- 매우 특수한 제품 생산에 특화되어 있고 같은 지역에 같은 제품, 부품,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으면서 협업과 분업, 경쟁을 하고, 공공재의 생산, 정보와 인프라 공유하면서 국내외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상당한 성공, 200여개 산업지구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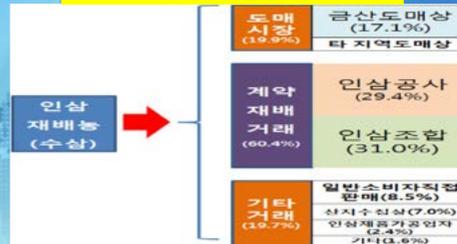
- Food/Fish Industry (Wine, Tomato, Ham, Fruit/Vegetables, Beer, Coffee, Pasta, Confectionery, Cheese, Meat, Fish)
- Leather and Footwear (Tannery, Bags, Shoes, Boots)
- Textiles and Fashion (Silk, Woolen fabric, Socks, Hat, Design, Accessories, Eyewears)
- Furniture (wood, Marble, chairs, Brushes)
- Household (cutlery, 냉장고 등 식당용기기, 수도꼭지, 자기류, 문장식, 자물쇠, 욕실액세서리 등)
- Goldsmithery/Jewelry (금세공품, 각종 보석 가공)
- Construction (유리, 타일, 접착제 등 건축자재)
- Mechanics (밸브, 각종 기계류)
- Biomedical
- Tourism & Cultural Heritage
- Shipbuilding
- ICT & High-Tech
- Multisector
- Energy, Others

이탈리아 산업지구의 특성

- 지역공동체의 문화, 가치 공유 - 개인행동에 대한 강한 내재적 억제 - 협업/분업, 협력/경쟁의 결합
- 지역민 소유의 소기업 지배 - 규모의 경제 낮음
- 구매업체와 공급업체간 상당한 수준의 지구 내 무역과 장기적인 계약과 약속
- 지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투자결정
- 지구 외부기업들과의 낮은 협력 연계도
- 매우 유연한 지구 내의 노동시장
- 노동자들은 기업들보다 지구에 대해 몰입
- 지구 내 청년층의 높은 수준의 잔존, 지구 외 이동은 낮음
- 매우 독특한 지구문화적 정체성과 유대의 진화
- 전문화된 금융, 기술적 전문성, 사업서비스의 원천은 지구 외 기업들로부터 이용가능
- 지구 내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의 존재
- 동요하지만, 좋은 장기적 성장과 고용전망
- 고객과 공급업체 사이에 높은 인적교류
- 위험공유, 시장안정화, 혁신공유를 위한 경쟁회사 간 높은 협력
- 디자인, 혁신 참여 노동자들의 매우 높은 비율
- 공동인프라, 경영진 훈련, 마케팅, 기술적 재무적 지원을 제공하는 강력한 무역협회
- 핵심산업 규율과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강한 역할

IV 지역산업과 고용 - 한국의 사례 - 금산인삼지구

인삼재배농의 수삼유통 형태와 거래형태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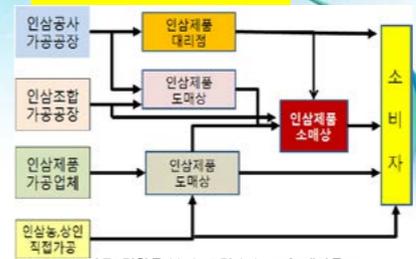


금산인삼약초지구의 구성

| | | 참여자수 | |
|---------------------|-----------|-------|-------|
| | | 2008 | 2011 |
| 인삼업 | 판매업 | 345 | 469 |
| | 가공업(제조업) | 367 | 435 |
| 약초류 | 약업사(도매상) | 105 | 68 |
| | 약초상회(소매상) | 175 | 191 |
| | 가공업 | 24 | 27 |
| 한의원(약국, 한약방) | | 22 | 21 |
| 건강원(탕제원, 건강제품 가공 등) | | 255 | 445 |
| 노점상(무점포, 한약재, 약초상인) | | 24 | 25 |
| 택배업(포장, 택배, 배송 등) | | 11 | 17 |
| 계 | | 1,328 | 1,698 |

자료: 전창근, 김동훈, 이은혜 2012. 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삼가공제품의 유통



인삼류 제조업체와 금산의 비중

| | 전체 | 홍삼 | 백삼 | 태극삼 | 기타 |
|----|-----|---------|---------|-----|----|
| 전국 | 570 | 73(185) | 294(12) | 3 | 13 |
| 충남 | 438 | 25(116) | 279(10) | 2 | 6 |
| 금산 | 420 | 22(101) | 279(10) | 1 | |

주: 괄호안은 홍삼류제조를 주로 하되 백삼/태극삼/흑삼제조를 동시에 하는 업체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실과, 2014.5. 2013년 인삼통계자료집.

자료: 전창근 2013. 그림 3-2, p. 49. 제가공

지역산업과 고용 - 한국의 사례 - 금산인삼지구

금산의 인삼소매업과 가공 관련 산업

| | 금산군 | | 전국 | |
|-------|---------------|---------------|-----------------|------------------|
| | 사업체 수 (비율) | 고용 인원 (비율) | 사업체 수 (비율) | 고용 인원 (비율) |
| 전체 | 5,036 | 22,962 | 3,602,476 | 18,569,355 |
| 소매 | 1,436 (28.5%) | 2,504 (10.9%) | 648,304 (18.0%) | 1,616,313 (8.7%) |
| 식품가공업 | 478 (9.5%) | 1,792 (7.8%) | 53,053 (1.5%) | 283,018 (1.5%) |

자료: 금산군, 2013 통계연보

금산인삼 도소매업체

| 이름 |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 금산인삼종합쇼핑센터 | 금산수삼센터 | 금산인삼전통시장 |
|------|------------|------------|----------|----------|
| 가게 수 | 169 | 60 | 134 | 57 |
| 이름 | 농협수삼랜드 | 금산약초시장 | 금산인삼약령시장 | 금산수삼시장 |
| 가게 수 | 78 | 31 | 238 | 162 |

자료: 금산군 Homepage

- 금산 인삼약초시장 내에는 3개소의 수삼도매 유통 시설과 5개소의 인삼·약초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 외 대규모 국제인삼물류센터와 약초물류센터가 있음.
- 인삼 약초시장 내에는 인삼, 약초관련점포가 1,192개소 있으며, 관련점포를 포함하면 약 1,700개소의 점포가 운영 중에 있음.
- 옆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산의 인삼 약초시장 전체는 점포수가 2014년 현재 1,192개에 달해 금산군 소매 사업체 수 1,436개 가운데 압도적 다수를 차지

지역산업과 고용 - 한국의 사례 - 금산인삼지구

금산 인삼 약초관련 단체 및 기관, 2012

| 구분 | 조직 수 | 단체·기관 명 |
|------------|------|---|
| 인삼재배·생산 기타 | 7 | 금산인삼협동조합(35), 금산인삼작목회(25), 금산인삼연구회(165), 삼백회(43), 삼지회(98), 삼농회(95), 한국인삼발전원의회 |
| 수삼도매 관련 | 5 | (주)금산수삼센터(323), 농협수삼랜드, 금산수삼시장, 금산수삼센터 상인회(323), 금산수삼직판장 |
| 인삼(제품)유통 | 5 | 금산국제인삼시장조립(203), 금산인삼약령시장(225), 금산인삼전통시장(37), 인삼쇼핑센터협의회(53), 금총협회(22) |
| 약초재배·생산 | 1 | 금산약초연구회(45) |
| 약초도매 관련 | 1 | 금산약초유통센터(40) |
| 인삼·약초 가공기업 | 2 | 금산인삼가공업회(19), 인삼약초기업협의회(36) |
| 약초·약재유통 | 3 | 한국한약도매협의회 충남지회(86), 약초도매백화점(40), 생약시장상조(30) |
| 연구기관 | 1 |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
| 기타 | 3 | 한국삼마니협회지부(22),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5) |
| 계 | 28 | |

자료: 전창근, 김동훈, 이은혜 2012. 금산인삼약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직은 있으나 금산인삼지구의 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거버넌스 부재

- 금산지역 순회판매행사, 금산인삼축제, 국제인삼엑스포 등에서는 유통상인들이나 인삼가공업자들이 행사의 기획, 준비, 진행, 예산조달에서 금산군에 지나친 의존
- 인삼산업의 구조개혁, 영세업자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 제품개발과 혁신 및 연구개발, 시장개척, 품질관리, 대표적 브랜드의 개발, 시장교란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삼제조업자, 인삼상인, 인삼재배농들이 필요로 하는 준공공재를 제대로 생산해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
- 금산 지역에는 많은 인삼, 약초 관련조직과 기구(28개)가 있으나 종합적인 조정 및 자율 규제능력, 필요한 서비스 생산이나 유사공공재 생산을 조직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들은 눈에 띄지 않음



지역산업과 고용 - 한국의 사례 - 금산인삼지구

금산인삼지구 거버넌스의 한계

- 인삼가공업체, 인삼유통업체들은 여전히 개별적, 고립분산적 각개 약진
- 인삼유통의 경우 체계적 유통과정, 구조, 유통노하우의 분석, 인삼품질의 체계적 분류, 선별의 객관적 기준이나 방법의 체계화, 유통스킬이나 경험 축적, 표준화를 위한 노력 부재
- 오랜 전통과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인삼재배, 인삼유통, 인삼가공 등과 관련해 체계적인 교육/전수를 위한 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부재
- 금산인삼지구발전을 위한 신기획,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설립과 운영, 금산인삼축제, 금산인삼엑스포, 전국 주요도시 순회특별전/박람회, 금홍 공동브랜드, 해외 인삼판촉행사 등은 모두 금산군의 예산과 주도로 진행
- 금산인삼지구의 구성원인 금산인삼유통업체, 금산인삼가공업체, 금산인삼재배농의 아이디어, 기획, 재정적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음.
- 과실만 향유하고 스스로 부담하거나 새로운 협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 부족

금산인삼지구와 고용

- 금산인삼 산업 종사 인력의 급격한 고령화
- 젊은 신규인력의 유입이 없거나 적으면, 금산인삼지구도 자연스레 쇠퇴 위기
- 성공적인 인삼재배, 유통, 가공업자의 자녀들이 부모 사업계승 사례가 나타남
- 사업계승을 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실험은 제한적(블로그나 인터넷 판매 등에 국한)
- 금산인삼사업을 계승한 젊은 세대들도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대전 거주, 금산사업으로 주거-사업분리형으로 지역내 의사소통이나 지역공동체에 통합정도가 낮음.
- 금산인삼지구에서 관철은 일자리 창출은 영세자영업자를 넘어서 신인삼제품 개발, 공동브랜드 금홍 참여,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삼가공제조업체들에서 가능성
- 규모가 큰 인삼가공업체들(약 20개)은 제품개발엔지니어 인력, 마케팅 인력, 제조관련 기술엔지니어 인력, 제품품질검사와 인증획득을 위한 인력, 무역인력, 기타 사무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 필요



지역산업과 고용 - 지역 축제와 박람회 분석

□ 축제와 박람회의 기본개념과 구상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양자의 혼동,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
- 지역축제 - 지역특산물을 기반으로 전국적 판촉행사(교육, 맛보기, 제품판매)
- 지역박람회(fair, exhibition): 다양하게 발전하고 새로 개발한 지역특산물, 지역특수한 제품들을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선보이고 향후 판매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

□ 장터로 전략한 지역축제/지역박람회

- 지역축제나 지역박람회에 지역특산물은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낸 신제품들은 찾아보기 어려움. 과거와 같은 제품 판매
- 5일장 순회장사꾼들이나 그 지역가게, 노점상들이 전국 어디에 가나 발견할 수 있는 각종 음식, 군것질을 지역축제를 계기로 1회적으로 판매하는 기회.
- 지역의 특수한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혁신하는 노력에 바탕을 둔 지역산업의 발전이 아님. 지역축제/지역박람회는 '형식적 행사(이벤트)'로 전략.
- 지역박람회는 박람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신제품, 신소재, 새 제조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신제품소개, 신제품 사용체험, 신제품과 관련된 교육 등을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함.

□ 지역박람회/축제의 작은 싹

- 지역의 작은 공방, 향교 등에서 각종 교육이나 제품 만들기 행사
-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노력과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함평 나비(교육)축제, 금산의 인삼축제 등은 발전의 싹을 포함하고 있음.

연사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학력사항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 2015 ~ 현재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 2014 ~ 현재 충남 고용창출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위원
- 2011 ~ 2013 충남 일자리 활성화 협의회 위원
- 2009 ~ 2011 충남고용지원분과 위원
- 2008 ~ 2009 대전충남 지방고용전문위원
- 2007 ~ 2008 충남지역고용지원협의회 위원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 사례와 향후 과제

[발표자 :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신동호]

2017.11.16



목차

| | |
|--------------------------|----|
| 01_ 서론 | 1 |
| 02_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2 |
| 03_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LIP)사례 | 8 |
| 04_ LIP추진을 위한 향후과제 | 13 |

01

서론

- 들어가며

02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개요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예산
- 직접일자리 사업의 범주 및 유형
-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01. 서론

01_1. 들어가며

문재인 대통령; “지역 주민 스스로가 주도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
- 제주 서귀포시 주민 오찬간담회(2017년 6월 16일) -



- OECD LEED(Local Economy & Employment Development)
 - 최선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지역단위 고용정책 추진 권고
 - 노동시장정책의 지방분권화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논의
 - OECD LEED와 이탈리아 정부간 고위급 회의(2008년 4월 17~19일)기간 중

☞ 국가(공공)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자율성 및 창의성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로의 전환 적극 모색

- 1 -

0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및 문제점

02_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개요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란?
 - ☞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분류기준
 - OECD 노동시장 프로그램 분류기준을 토대로 2011년 6개 유형으로 분류

| 2010년 이전기준 | 2011년 이후 기준 |
|--|--|
| 직접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지키기 고용촉진 교육 및 훈련 |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 '10년까지 총리실에서 4개 유형으로 분류관리('08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관리)

- 2 -

0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및 문제점

02_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지자체 예산 제외)
 - 예산총액 지속증가 139,767억원('15) → 170,736억원('17)
 - 직접 일자리사업 예산비중 지속감소
 - 연평균 증가율 4.8%로 전체 평균증가율 10.5%를 크게 하회

(단위 : 억원, %)

| 구분 | 2015 | | 2016 | | 2017 | | 연평균 증가율 ('15~'17) |
|-------------|---------|-------|---------|-------|---------|-------|-------------------|
| | 예산 | 비중 | 예산 | 비중 | 예산 | 비중 | |
| 총계 | 139,767 | 100.0 | 157,796 | 100.0 | 170,736 | 100.0 | 10.5 |
| 직접일자리 | 24,634 | 17.6 | 26,342 | 16.7 | 27,069 | 15.9 | 4.8 |
| 직업훈련 | 17,899 | 12.8 | 19,716 | 12.5 | 22,460 | 13.2 | 12.0 |
| 고용서비스 | 6,102 | 4.4 | 6,904 | 4.4 | 7,999 | 4.7 | 14.5 |
| 고용장려금 | 25,961 | 18.6 | 28,208 | 17.9 | 31,752 | 18.6 | 10.6 |
| 창업지원 | 18,339 | 13.1 | 19,148 | 12.1 | 22,003 | 12.9 | 9.5 |
|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 46,832 | 33.5 | 57,478 | 36.4 | 59,453 | 34.8 | 12.7 |

자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_중앙부처 각년도.

- 3 -

0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및 문제점

02_4.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 직접일자리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I
 - 국무총리실 2011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기능 차등으로 자립지원 효과 미흡
 - 관계부처간 협조미흡 등으로 유사중복사업 추진
 -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평가결과
 - 민간노동시장 이행률이 낮으며, 반복참여 비중 높음
 - 사업종료 후 재참여 비율 51.3%에 달하며, 민간부문 일자리 재취업비율 4.8%로 현저히 낮음
 - 감사원 2015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 달성 부진
 - 일부 사업의 경우, 고액재산 보유자 및 공적 연금 수령자 참여문제 발생
- ☞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작고 유사중복적이며, 한시적 일자리를 양산하는 한계 노정

- 5 -

0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및 문제점

02_3. 직접일자리 사업 범주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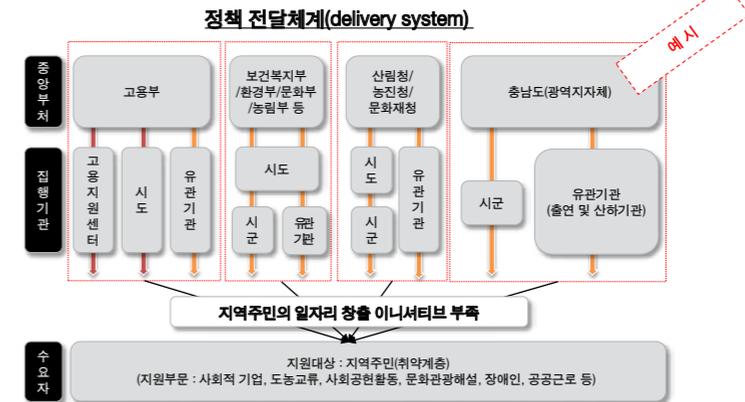
-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범주
 -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지원
 -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은퇴인력 등을 대상으로 실비지원을 주 내용으로 「자원 봉사형 일자리」도 포함
-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유형
 - 사회적 기업육성
 - 도농교류 활성화(마을 사무장)
 - 사회공헌 활동지원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지역중소·중견기업 R&D산업인턴 지원
 - 공공근로 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산림 가꾸기, 5대강 환경지킴이, 지자체 공공근로 등)

- 4 -

0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및 문제점

02_4.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 직접일자리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II
 - 공공주도 및 공급자 중심의 정책 전달체계
 - 중앙부처의 기획조정 및 관리, 유관기관간 연계협력 미흡
- * 일자리 사전 협의제 도입 : 각 부처,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신설·변경 시 고용부와 사전협의 의무화(고용정책기본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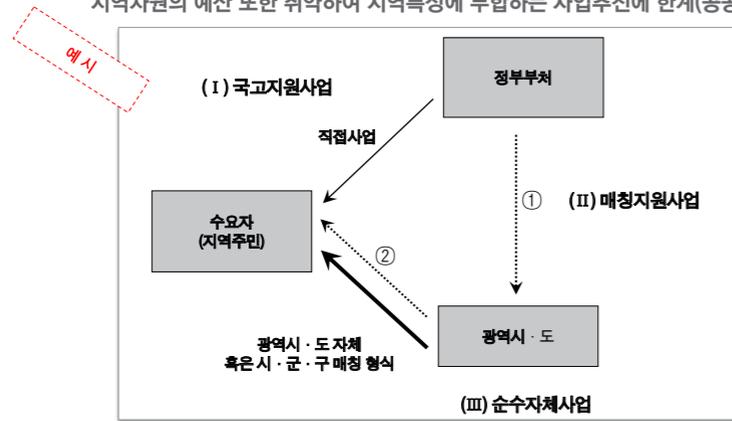


- 6 -

0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및 문제점

02_4.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 직접일자리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Ⅲ
 - 지방정부의 자율성 부족
 - 일자리 예산의 기획·집행·관리 형태는 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방식이며, 지역차원의 예산 또한 취약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에 한계(공공근로사업 중심)



- 7 -

03.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사례

03_1. 캐나다 Parry Sound 지역의 LIP(Local Initiative Program)

- Parry Sound CB&DC(Community Business and Development Centre) 개요
 - 지역의 경제성장과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비영리 기관
 - 연방정부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토대로 자원 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제3섹터의 성격의 기관
 - 지역민이 참여하여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 서비스 및 비즈니스 기회 제공
 - 참여자의 'initiative' 를 발현하기 위해 비즈니스 계획의 자발적 수립 유도
 - 1987년 이후 538건의 비즈니스(47백만\$)승인을 토대로 2,286개 일자리 창출과 지속경영 지원



- 8 -

03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LIP) 사례

- 캐나다 Parry Sound 지역의 LIP(Local Initiative Program)
- 정책적 시사점

03.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사례

03_1. 캐나다 Parry Sound 지역의 LIP(Local Initiative Program)

- 주요기능
 - 지역 커뮤니티 전략계획에 의한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 지역 비즈니스에 대한 자금지원과 자문서비스 제공(providing funding & advisory services)

○ 지원주체



○ 파트너십 기관

- FedNor(The Feder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of Northern Ontario)
 - 연방정부 차원에서 Parry Sound CB&DC와 파트너십을 맺음
 - 지역민의 비즈니스 창업(start-up)과 지속경영을 위한 다양한 Business tools 제공

- 9 -

03.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사례

03_1. 캐나다 Parry Sound 지역의 LIP(Local Initiative Program)

○ 사업방식(지원절차)



- 평가기준
- ① 경제성
- ② 사회적건전성
- ③ 지속성
- ④ 고용규모

○ CB&DC Service Area : 12개 지자체



Our **MISSION** is "We find a way to say **YES**"

자료 : <http://www.parrysound.ca/>

03.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사례

03_2. 정책적 시사점

- bottom-up방식의 정책전달체계 유지
 - 정부기관과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되, 비즈니스의 총괄 기획·관리·유지를 지역과 주민이 주도
- 제3섹터 방식의 민관협조체계 정착
 - 공공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의 자원봉사자가 직접 운영함
-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 존중
 - 비즈니스 계획의 자발적 수립을 유도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에 자율성 부여
- 경제적으로 유의미하며,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에 초점
 - 비즈니스의 사업성과 지속성을 위한 다양한 자문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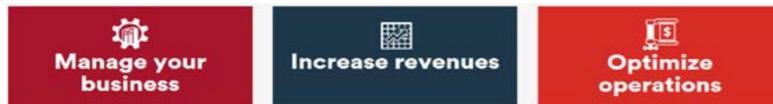
지역과 주민의 자율성 및 창의성에 기반하여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과 지속경영 노력 유도

03.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사례

03_1. 캐나다 Parry Sound 지역의 LIP(Local Initiative Program)

○ 자문 서비스

- 비즈니스 관리측면 : 계획수립, 자금조달, 인력관리 등 제 분야 컨설팅 등
- 수익증대 측면 : 소규모 비즈니스 코칭, 판매 및 마케팅, 시장 정보 및 전략수립 등
- 운영활성화 측면 : 각종 인증(ISO 9001, ISO 14001, GFSI, HACCP), 기술관련 컨설팅 등



○ 지원 및 제안분야

- 커뮤니티 기반 경제 및 지역발전 제 분야
- 관광이벤트,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 마케팅 및 홍보활동 제 분야
- 소규모 자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및 연구 프로젝트 관련 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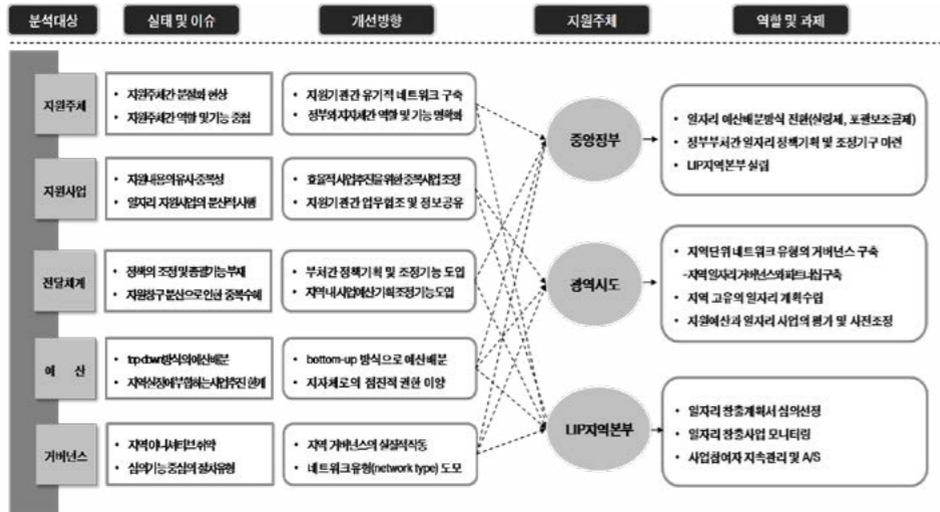
04

LIP추진을 위한 향후과제

- LIP추진을 위한 지원주체별 역할 및 과제
- LIP추진을 위한 정책전달 단계별 역할 및 기능
- LIP추진방안

04. LIP추진을 위한 향후과제

04_1. LIP추진을 위한 지원주체별 역할 및 과제



- 13 -

04. LIP추진을 위한 향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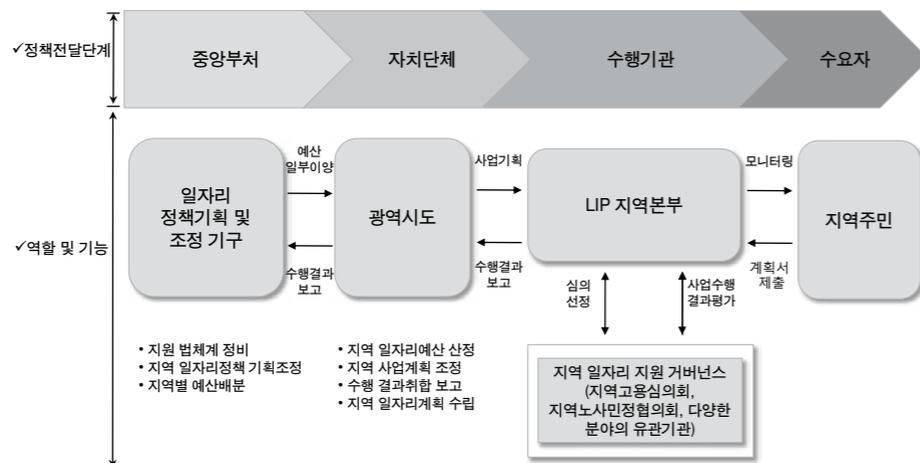
04_3. LIP 추진방안

- 추진주체
 - 민관협력기관 : LIP지역본부 설치(또는 기존 유관기관 관련업무 대행)
- 사업규모
 - 지원규모 :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 중 지역실정에 맞게 일정 비율(%) 설정
- 지원대상
 - 지역민 전체 : 미취업자, 퇴직자 및 실업자, 취업취약계층, 주민단체 등
- 제안분야 및 방식
 - 사업범위 : 지역 산업경제 및 지역발전 전 분야
 - 제안방식 : 소정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선정방식
 - 선정기준 : 수익성, 사회적 건전성, 지속성, 일자리 창출규모 등
 - 선정절차 : 서류심사 후 면접 및 현장확인
- 지원내용
 - 자금지원 : 심의·선정과정에서 프로젝트 지원액 설정 또는 신규 일자리 임금의 일정 비율(%)
 - 기타지원 : 프로젝트 지속관련 지원서비스 제공(각종 컨설팅, 수요자 needs 반영)

- 15 -

04. LIP추진을 위한 향후과제

04_2. LIP추진을 위한 정책전달 단계별 역할 및 기능



- 14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사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현재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

학력사항

목원대학교 대학원(행정학) 석사 수료

주요경력

1995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2002 지방분권 국민운동 집행위원장

2006 한국 NGO 학회 이사

200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운영위원장

200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2009 (사) 풀뿌리사람들 상임 이사

2013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장

2014 대전시민사회 연구소 부이사장

초록

지역사회혁신생태계조성 전략

기존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혁신 생태계는 정부-시장-비영리기구-시민 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필요 중심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시민을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로 상정하여야 한다. 사회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추격형 성장모델을 넘어선 내발적 혁신 체계의 구축, 혁신에 대한 자율성 부여, 시민사회협업 틀 형성, 기술과 사회혁신의 통합이 필요하며, 혁신실패 안전망 부재도 극복해야 한다.



지역사회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김제선(희망제작소 소장)



사회적 난제에 포위된 한국사회



사회혁신공간데어 연구팀, 한국사회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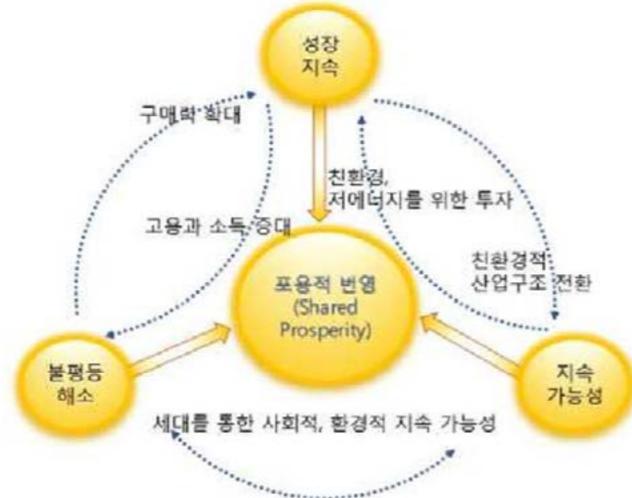


한국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안?

저성장의 구조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지방의 대상화와 피폐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통한 미래 선순환



성장과 사회적 평등, 지속가능성의 공진
질적인 일자리성장 추진

문재인 정부의 시대 규정 : 국민의 시대

| 구분 |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
|----------|----------------|------------------|
| 국민의 성격 | 근대적 국민 | 주권자 국민 |
| 국민-국가 관계 |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 |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
| 국민주권의 특성 | 대표되는 국민주권 | 개개인의 국민주권 |
| 권력의 성격 | 위임된 권력 | 상생적 권력 |
| 참여방식 | 제도화된 국민참여 | 일상적인 국민주권 행사 |
| 주권 실현방식 | 참정권, 투표권 | 국민제안, 국민숙의, 국민결정 |
| 역사적 사건 | 1987년 6월항쟁 | 2016년 촛불집회 |
| 사건의 의미 | 국민주권의 통로·제도 구축 | 아래로부터의 국민주권 표출 |
| 민주주의의 형태 | 제도 민주주의 | 일상 민주주의 |
| 정치-시민 관계 |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 |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연계 |
| 시민참여 기반 | 조직화된 시민사회 기반 |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 |

- 주권자 민주주의의 구성요소
- 주권자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는 △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 직접 민주주의 △ 일상의 민주주의 △ 과정의 민주주의 △ 풀뿌리 민주주의
 - 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
 - ② 직접 민주주의 → 내가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정책
 - ③ 일상의 민주주의 →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
 - ④ 과정의 민주주의 →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 ⑤ 풀뿌리 민주주의 →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시장과 국가계획에 의한 변화의 한계 복잡한 세상의 주인으로 서는 張三李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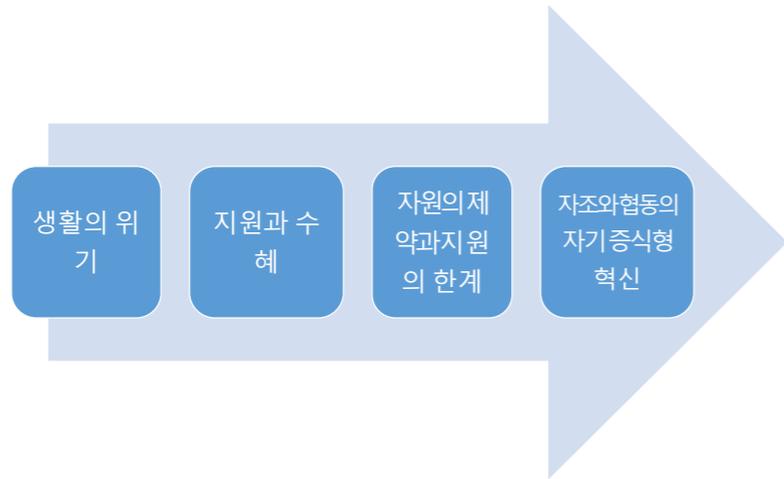


복잡해지는 사회, 엘리트시대의 종언과 대중 참여의 시대
국민,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참여 없는 문제 해결 불가능 시대

사회혁신론의 등장

-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나 패러다임이 더 이상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함.
- 사회혁신은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개발과 포용적 성장의 가치를 추구하며,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화를 강조함.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화를 강조하며 다양한 행위자간 새로운 관계, 조직의 발생 등 사회전반의 혁신을 의미.
- 신자유주의의 중심의 경제체제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성장 중심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는 시도.
- 사회문제 해결에 국가 관료제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과 차이.
- 기술혁신에서 사회혁신론으로 전환 : 선형발전, 혁신체제적 관점, 사회-기술시스템 관점
- 혁신체제론의 한계: 시장메커니즘을 기본과점. 혁신의 사회적 효과와 수요 미반영. 공급위주의 관점
- 발전국가 대 규제국가 수준의 논의, 기업과 시장 중심의 혁신체제로부터의 전환

생활 위기 와 사회혁신모델



국민생활연구 개념 및 프로세스(1/2)

개념 국민생활문제를 국민참여 기반으로 해결하는 연구개발 활동

정의

- 광의** ▶ 국민생활문제 해결과 미래 사회변화 대응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과학기술 투자
- 협의** ▶ 국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급안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

협의 (심각도) →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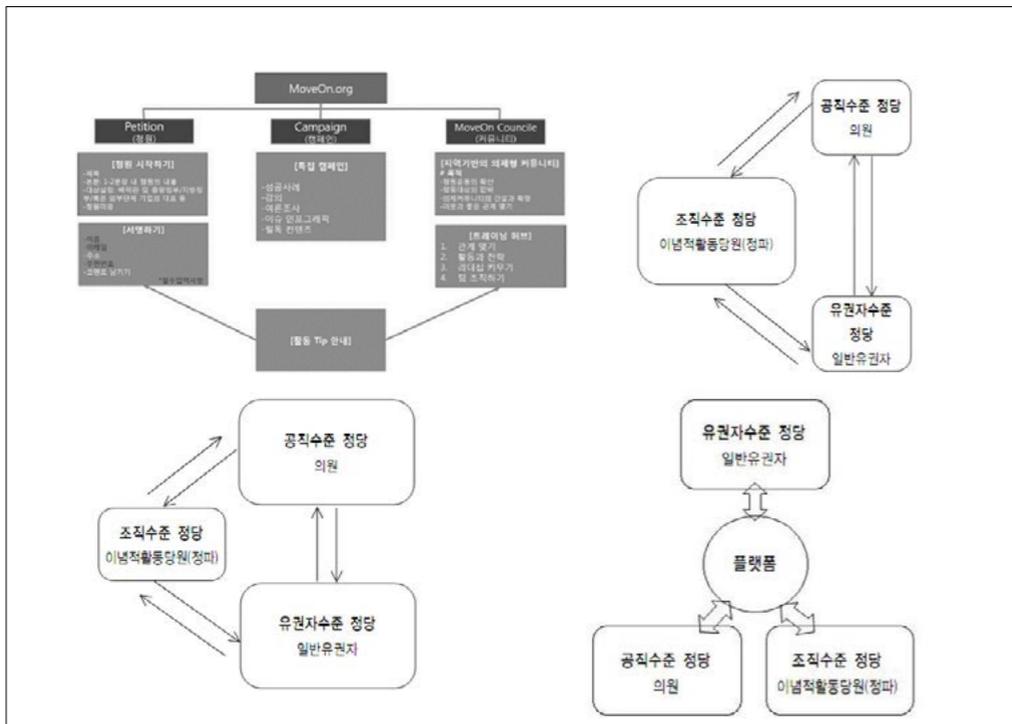
| | |
|-----------------------------------|-------------------------------------|
| 우선 심각한 생활문제 (미세먼지, 감염병) | 확장 미래변화 대응 (기후변화, 4차산업대응) |
| 생활 불편문제 (소음, 주차) | 편의 증진 (문화, 여가) |

주요 국민생활문제 분야

- 건강**: 치매, 만성질환, 난·불임, 난치병, 불량식품
- 안전**: 지진, 감염병, 방사능 오염, 유해물질 유출, 사이버범죄, 아동학대 등
- 쾌적**: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수질오염 등
- 편리**: 생활폐기물, 노후주택, 충전 소음 등

▶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R&SD and Delivery)**
현재 심각한 문제(협의) 해결에 집중(17년~)하고, 향후 생활문제, 편의증진 과 미래대응 등(광의)으로 범주확대

- 11 -



국민생활연구 개념 및 프로세스(2/2)

| 기존 R&D와의 차별성 | |
|--------------|----------------------------|
| 출발 | 연구자 vs 국민수요 |
| 기억 | 先 연구, 後 활용 vs 先 활용기억, 後 연구 |
| 협력 | 연구자간 vs + 국민 파트너십 |
| 변화 대응 | 기술연계 vs +문제·사용자 요구 + 긴급연인 |
| 목표 | 기술·경제 성과 vs 문제에결 성과 |

사회혁신시스템으로서의 국민생활연구

| | |
|--|---|
| R&D 경제혁신시스템으로서의 연구개발 (Technology Innovation) | R&SD 사회혁신시스템으로서의 국민생활연구 (Social Innovation) |
| 추진 목적: 경제적 성과, 기술력 진보 | 추진 목적: 사회적 가치 통합 구현 |
| 구현 방식: 기술인위, 플랫폼 중심 | 구현 방식: 혁신역량 강화 |
| 투자 성과: 핵심기술, 선도제품 | 투자 성과: 종합적 문제해결방안 |

국민생활연구 프로세스

- 12 -

사회혁신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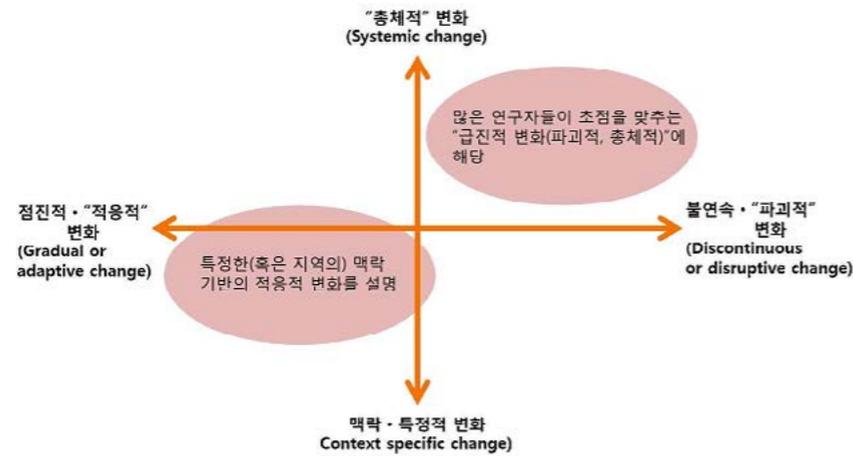
사회혁신은 '사회적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을 통해 개발되고 확산되는 혁신적 행위와 실천'이자 '전략과 조직화된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변동의 과정' (Mulgan)

혁신은 그 자체로 목적 혹은 어떤 문제들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이다.(Christiansen & Bunt)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며, 이 새로운 방식은 다양한 영역 간 교차, 구체적인 상황 반영, 사회적 가치 내재, 측정 가능한 구체적 결과 도출, 사회적 관계 및 권력관계 변화, 시민역량 강화 등이 특성을 포괄한다.(Caulier-G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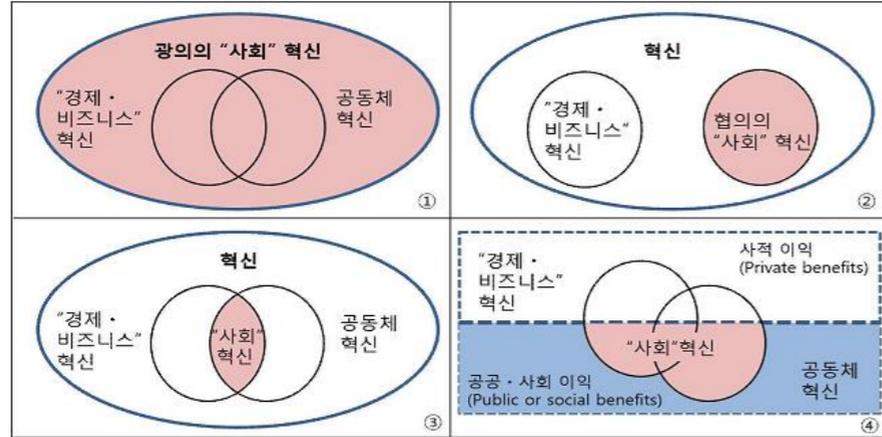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필요 중심의 관점을 통해 개인 수준의 미시단위부터 국가 수준의 거시단위까지 책임주체로 주목, 사회혁신은 시민을 서비스 '대상'에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상정

| 분석 수준 | 사회혁신의 정의 | 연구자 |
|-------------------------------------|---|--|
| · 거시적 사회혁신 (societal innovation) | ·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전환 노력 | · Rotmans(2005) |
| | · 사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 및 경제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회 전체의 (구조변화를 수반한) 혁신 | · BEPA(2010) |
| · 사회적 혁신 | · 개별형 혁신, 혁신 생태계 등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i.e. 대학, 비영리기구 등의 이니셔티브) | · Lehtola and Stähle(2014) · Lin and Chen(2016) |
| | · 사회적인 목적과 수단들 모두 갖춘 혁신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아이디어(제품, 서비스, 모델)를 토대로 사회적 목표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사회관계 또는 협력을 창출 | · BEPA(2010) |
| · 미시적 사회혁신 (business 혁신) | · 사회 목표를 위해 작동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 · Mulgan et al.(2007) |
| | ·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로 유발되고, 1차 목표가 사회적 성과를 띠고 있으며, 그런 조직들이 주도로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행동과 서비스 | · 영(Young)재단 · Nesta · 희망제작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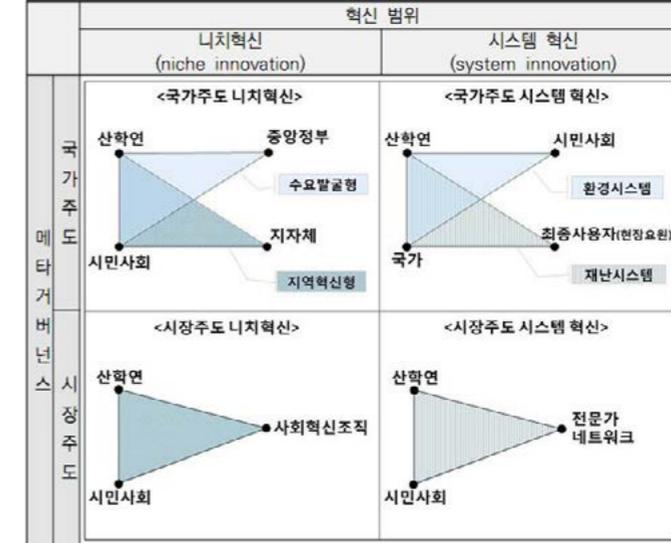


Government of Canada(2010: 2)

| | | |
|------------------------------------|--|---|
| · 총범위 사회혁신 (social+business 혁신) | · 행위자들의 관계에 주목하여 사회적 연결의 변화, 행위자들의 새로운 방식의 실행(doing), 조직화, 프레임, 사회의 새로운 프레임-의미-지식 창출 등 기술뿐 아니라 관리, 새롭게 공유되는 생각까지 혁신의 과정이자 결과로 인식 | · TRANSIT |
| | · 이해관계자와 지역 주민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재무, 조직, 개념, 프로세스, 상품 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의미 ·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새로운 서비스 전달과 개인의 근로여건과 지위를 개선을 위한 경쟁과 일자리, 참여, 노동시장 등의 개선 추구 · 인류와 지구의 번영을 위해 기존의 사회, 문화, 경제 및 환경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개념과 형태, 구조 등의 끊임없는 시스템 변화 노력 | · OECD(LEED 포럼) · 캐나다 사회혁신센터 |
| · 미시적 사회혁신 (business 혁신) | · 사회혁신은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 · 덴마크 사회혁신기관 (MindLab) |
| | · 사회적인 문제나 자선사업(charitable mission)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전달방식 · 기업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노력으로서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경영 활동 ·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에서 창출된 가치로서, 사회문제에 대해 기존 솔루션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솔루션 개발 혹은 그 과정 | · Salamon et al.(2010) · Porter and Kramer(2011) · Christensen et al.(2006) · Phill et al.(2008) · Pue et al.(2016) |



[그림 2] '사회'혁신 개념의 유형



| 사회혁신의 유형 | 특성 | 사례 |
|-----------------------------|---|---|
|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 사회 니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 카 셰어링, 제로에너지 주택개발 |
| 새로운 행동 |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과 관계 형성 | 네덜란드의 시민과 국가 간 관계 재정립(시민사회의 니즈 충족을 위한 공무원 역할 변화) |
| 새로운 프로세스 |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공동 생산 | ICT를 활용한 참여예산제도, 크라우드소싱, 공동주택 |
| 새로운 조직 형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 형성 |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노력의 지속성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소셜 파이낸싱, 단기성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버킷챌린지 등) |
| 새로운 규칙과 규정/플랫폼 형성 | 사회문제의 지속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규칙과 규정 제정 및 플랫폼 구성 |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시행 중인 개인예산제도(복지비 사용처의 자율 선택권 보장), 헬스케어 플랫폼 |
| 새로운 프레임링(framing)과 사회적 의미창출 | 특정 이슈의 정의, 비전, 이미지화 창출을 통한 혁신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주민들의 서사공유(에너지 공유, 수자원의 분홍 로컬푸드 캠페인 등) |

영미와 유럽의 사회혁신체제론

| | |
|-----|--|
| 미국형 |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실험되고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중심.(미국, 캐나다) 사회혁신을 기업중심의 사회 문제 해결 노력으로 인식 |
| 유럽형 | 다양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사회실험을 벌이는 사회 니치(틈새)를 강조.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으로 사회관계와 실천에 중점. 시민사회를 가장 중시하며 사회혁신을 위한 정부 혁신을 주장. |

사회혁신으로서 사회적경제 정책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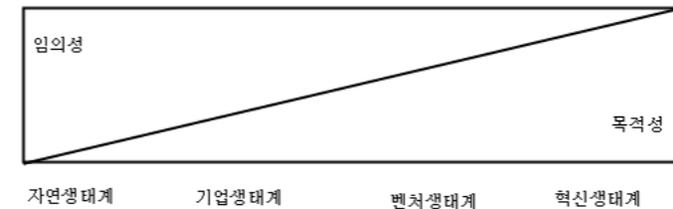
1. 보편적 사회적경제가 아닌 잔여적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는 주류경제정책의 보완기능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제약(성과 IN VS OUT)
2. 지역 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가 아닌 정부전달형 사회적경제
 - 지방정부의 주체역량 형성 제약
3. 개별 사업체 중심 지원으로 인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실패

| 생태계의 개념 유형 | | | |
|---|---|--|---|
| 자연생태계 | 기업생태계 | 벤처생태계 | 혁신생태계 |
| 생물 군집과 환경으로 구성된 통합시스템으로서 생산-소비-분해-재생산의 과정 속에서 생물공동체(유기체)와 이를 둘러싼 환경(무기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생적이며 자기영속적 속성을 가짐 | 다수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환경 속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개별 기업의 생존과 번영,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망. 기업창업-생산요소 및 수요시장-퇴출-기업재창업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 자연생태계와 유사. | 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자발적 유기체로서 벤처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관계를 갖고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이. 성장, 진화, 융합, 분화를 통해 생존, 성장하는 자기증식 시스템 | 혁신과 연관된 다양한 주체들이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진화하는 유기체 |
| 구성요소: 생산자-소비자-분해자 | 개별기업의 생로병사는 개별기업이 아니라 기업과 연결된 기업 및 환경과의 관계에서 결정 | (핵심요소)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기반요소) 연구기관 등 기술, 전문인력, 자금, 전문적 자문 | |
| 역할별 생물종: 핵심종, 우점종, 틈새종 | 개척시기-확장시기-권위시기(성숙기)-혁신시기 | (외부요소) 정부 해외 벤처 등 기반요소를 지원하거나 해외연계 | |
| 항상성을 가지지만 진화하고 그 핵심은 종의 다양성 | 중요요소: 기업연결성, 자기조직 역동성, 생태계의 강건성, 혁신을 통한 기회 창출, 경쟁을 통한 학습과 상보성 | | |

사회적경제 정책의 한계

| | 기존접근 | 새로운 접근 |
|------------|------------------------------|--|
| 추진관점 | 일자리창출 (단기성, 양적 성장 중시) | 시민 주도 사회혁신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주민 역량 강화, 장기적 질적 역량 강화) |
| 지원전략 | 한시적 인건비사업비 지원 (획일적 형평성 원칙) | 포괄 사업비/시장조성/사회적기금 조성/시민교육·인재양성 |
| 지역형 개념 | 지자체 선정 지원형 | 지역의 핵심 과제 해결형 (역내 지역격차, 로컬푸드, 청년·시니어 사회참여 등) |
| 정책대상 | 경제활동 조직 한정 (SE·CB·COOP·자활기업) | 생산 재생산 영역 포괄(지역화폐운동, 착한전문가운동) |
| 지속가능성 확보전략 |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간 경쟁 | 사회적경제 클러스트 경제+사회적가치 측정 |
| 추진체계 | 공공주도형 |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
| 협력범주 | 지자체+기업사회공헌 | 지자체-기업-시민-SE조직(시민참여 다각화) |
| 임파워먼트 | 지원-수혜 분리모형 영리모방형 경영지원 | 피어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 중간지원체 육성 |

생태계 유형별 목적성



문재인 정부 사회혁신 추진

| | | |
|-----------|---|---|
| 비전 |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구현 | |
| 목표 | 사회혁신 전국화 및 국가운영원리 정착 | |
| 전략 | 1. 난제해결을 위한 작은 혁신모델 전국화 2.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구축 3. 시민주도 사회혁신 기반 조성 4.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정부혁신 | |
| 5대 중점추진분야 | 사회혁신 기반 조성 | 1. 사회혁신 기금 및 재단 설립 추진 2. 시민 주도형 사회혁신파크 조성 3. 사회혁신 국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4. 사회혁신 국제 네트워크 구축 협력추진 |
| | 사회혁신 임팩트 사업 추진 | 1. 혁신 읍면동 구축 2. 난제해결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 3. 청년 현실에 기반한 종합적 청년정책 추진 4. 공공시설 민간공유 활성화 |
| | 국민정책 참여 확대 | 1. 광화문 1번가 상설화 2. 시민과 함께만들어가는 사회혁신브랜드구축 |
| | 디지털 사회혁신 추진 | 1. 데이터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 2. 디지털 시민참여 시범사업 추진 3.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추진 4. 디지털 사회혁신 기반조성 |
| | 사회혁신의 국가 운영 내재화 | 1.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정부혁신 2. 지역발전특별회계 활용한 사회혁신사업 확산 3. 공직사회 내 사회혁신 확산 교육 추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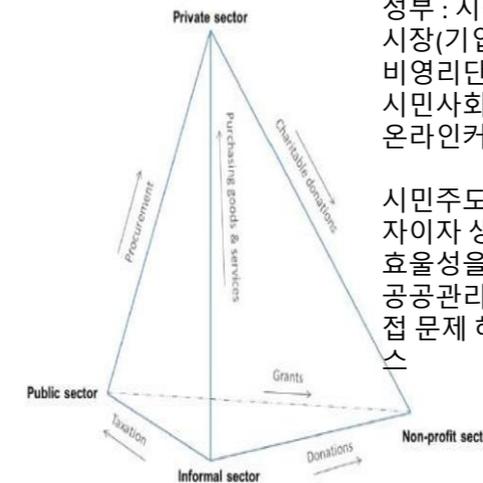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의 기본 관점

1. 시민의 문제해결 역량의 강화에 기여함
2. 좋은 시민사회를 통해 좋은 정부와 시장의 창출을 지향
3.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 주체의 활용과 참여 추진
4.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통한 사회혁신의 효능감 강화

한국에서의 혁신 체계의 반성

- 패러다임 전환 미흡 : 추격형 성장 → 내발적 혁신
- 혁신을 위한 자율성 부여 미흡(긍정적 블랙스완)
- 혁신의 주체로서 시민사회 협업 틀 구축 미흡
- 기술혁신 중심성으로 사회혁신의 통합 미흡
- 혁신(실패) 안정망 부재

사회혁신의 영역과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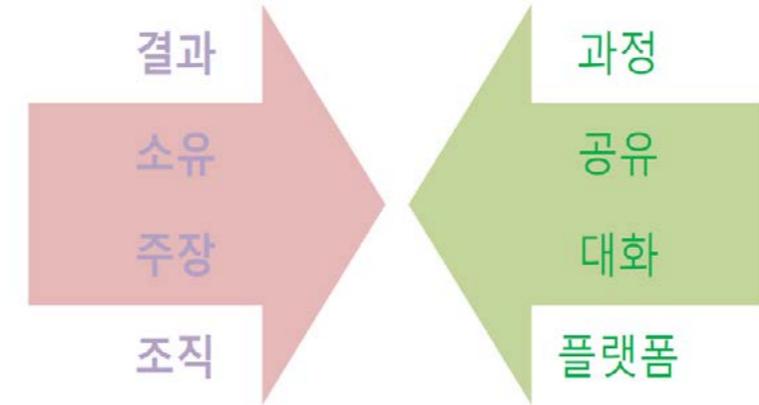
정부 : 지원자이며 기획자
시장(기업)
비영리단체
시민사회(개인, 가족, 지역공동체, 종교, 온라인커뮤니티)

시민주도성(citizen-driven) 서비스 대상
자이자 생산자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원형 거버넌스(신 공공관리적 거버넌스)를 극복 시민이 직접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사회혁신생태계 조성 전략

1. 사회혁신 패러다임의 정립: 종합적 차원
2. 사회혁신 인지적 행정: 여러 부서의 협업, 현장 수요 중심 접근
3. 지역공동체 기반: 장기적 공동체 능력 향상
4. 지역특성 맞춤
5. 수요 대응 지원 정책
6. 사회적 배제 계층 직접 참여 지원
7. 사회적 가치 적정조달
8. 민간투자 촉진
9. 연구개발 지원
10. 중간지원조직 지원

재미 있는 사회혁신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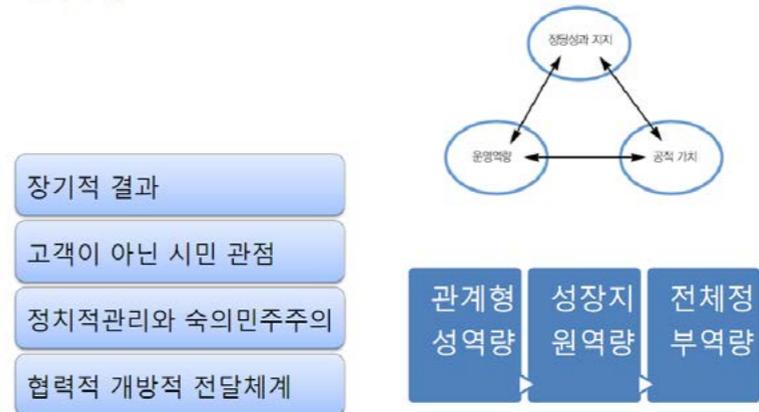


자산 중심의 관점

| 이전 | 새로운 관점 |
|------------------------|---------------------------------|
| 결핍, 결손, 부족한 것에 대한 관심 | 유용한 자질, 자산에 관심 |
| 해답을 주는 문제 | 동일시, 일체화의 기회 |
| 자선에 대한 훈련과 지도 | 투자에 대한 훈련 및 지도 |
| 더 많은 서비스 혜택 | 참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
| 정부기관에 대한 강조 | 기업, 종교단체, 협회, 기관 등에 대한 역할 기대 강화 |
| 개인에 초점 | 지역사회, 이웃에 대한 강조 |
| 유지 | 변화, 발전 |
| 주민을 '고객(CLIENTS)'으로 보기 | 주민들을 '시민(CITIZEN)'으로 보기 |
| '고정된' 사람들 |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 변화발전과정에 있는 사람들 |
| 프로그램의 진행 | 사람(의 긍정적 변화) |

공적가치관리론 Public Value Management

'고객만족 또는 효율성이라는 목표'를 넘어서서 '공적 가치의 생성'을 추구함



영국협동조합자치구



협동조합지자체 혁신네트워크



(출전 전성환, 램베스사례로 본 민관협치모델)

OPEN WORKS 개요

램베스 의회 + Civic system Lab ▶ The Open Works 팀 구성

- 런던 램베스 west norwood 지역의 '참여문화'를 기반한 생활 시범 시스템 운영
- 12개월(2014. 2.~2015. 2.) 동안 1,000명의 사람들과 협업하여 20개의 프로젝트 진행
- 지역주민의 잠재적인 참여의식과 행동을 이끌어내어, 지역에 의미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향후 사회적 기업의 창업까지를 기대하는 혁신 프로젝트
- 오픈웍스 프로젝트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사회와 커뮤니티의 변화(reshape)를 시도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혁신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서 착안
- 램베스구의 비어있는 상점공간을 이용하여 Works Shop라는 공간을 만들어, 램베스구 소속 공무원이 시민들을 기다리며 상담을 제공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라도 시도해보고 싶은 시민들은 이 공간에 부담없이 공무원과 상담을 해보고, 1차 프로젝트를 시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음



(출전 전성환, 램베스사례로 본 민관협치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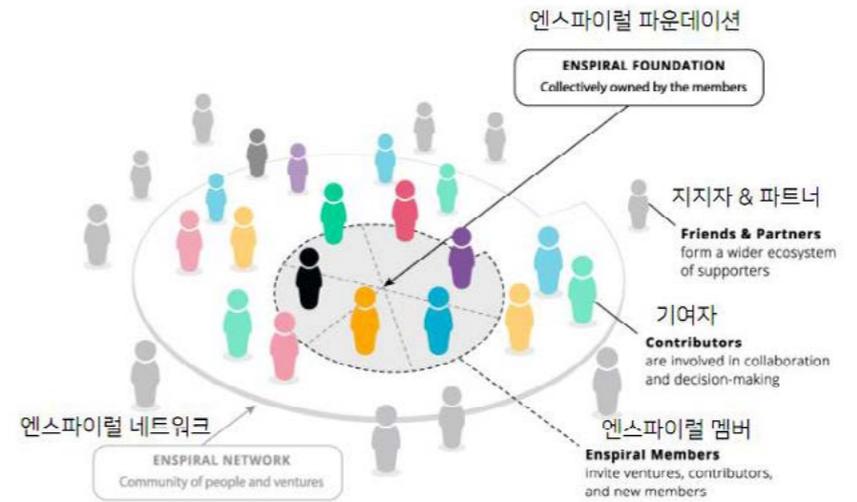
▣ 램베스구가 정의하는 협동조합형 위탁사업

- 1)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서비스
- 2)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
- 3)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램베스구의 독단적인 실행보다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 수행
- 4) 공공서비스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자세를 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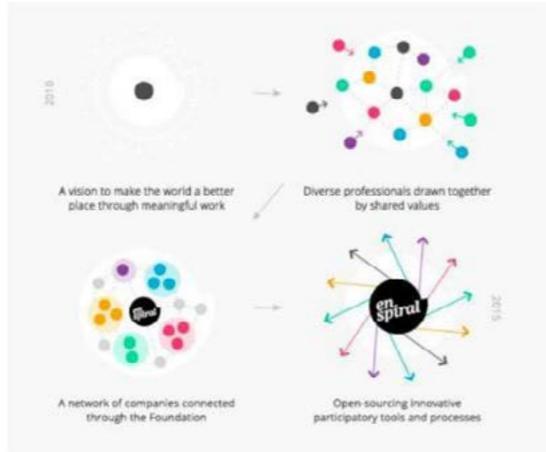


(출전 전성환, 램베스사례로 본 민관협치모델)

새로운 형태의 중간지원 플랫폼-엔스파이럴



출전 장석원, 엔스파이럴의 이해



열린 협동조합 (Open Co-op)

DIY 소셜벤처 지원 네트워크
 자발적 사회적창업, 사회적경제 지원의 역할 정해지지 않은 유연한 조직

출전 장식원, 엔스파이럴의 이해



Let's Build Hope Together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례발표 및 정책제안



김흥장

충청남도 당진시장

현재
충청남도 당진시장

학력사항
경희사이버대학교 정치사회 학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정책학 석사

주요경력
2006 ~ 2010 제8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2010 ~ 2014 제9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2014. 07 ~ 민선 6기 당진시 2대 시장 취임

초록

당진형 청년정책,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당진의 도전이 시작되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현재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 등 청년문제가 사회적 위기로 고착화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일자리, 주거, 보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이 미흡하여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88만원 세대', 'N포 세대'라는 용어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청년들이 사회를 선도하는 계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새로 조명되는 것이다. 이런 청년들의 현주소를 타개하려면 지금이 기성세대가 살아온 사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의 시선에서 청년문제를 직접 실험하고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혁신을 일궈낼 수 있도록, 당진시는 시정의 최우선으로 차별화된 당진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계화·자동화 등 산업고도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어 기업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다다랐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무직 일자리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산업구조가 제조업 위주인 당진은 청년들에게 장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고급인재가 유출되면서,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인적자원 고갈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IT 등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인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벤처산업과 고부가가치 농업을 중심으로 청년창업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창의적인 유망 아이템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문제다.

당진시에서는 "차마 하지 못했던, 미처 하지 못했던 청년정책, 당진은 한다"라는 철학과 정신으로 청년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문제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복잡·다양한 인과관계가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자리는 물론 사회참여, 주거, 보육, 문화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당진시는 설자리(제도·기반·참여), 일자리(취·창업), 살자리(주거·보육), 놀자리(문화·커뮤니티) 4대 분야 총 31개의 청년 특화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 분야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설자리'는 "청년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과의 소통을 넓혀갑니다"를 모토로 한다. 당진시는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또 충남 최초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며, 전국 최대 청년복합지원센터인 당진청년센터를 설치하는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일자리'는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당진만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합니다"가 모토다. 맞춤형 청년인턴제, 청년취업 사관학교, 취업준비생 전용 도서관, 청년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특례자금 조성, 청년창업농 육성 조례, 세계 최초 민간분야 청년 생활임금제 도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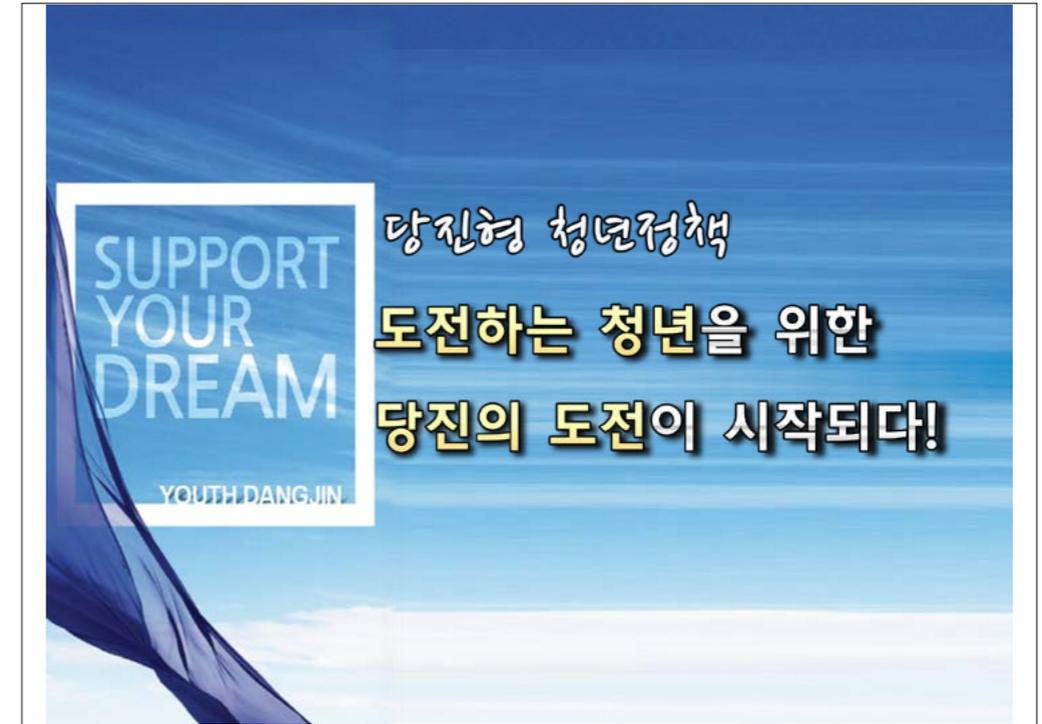
셋째, '살자리'는 "청년의 주거환경을 살피고 맞벌이 청년가정의 양육 고충을 덜어드립니다"를 모토로 한다. 주거환경 위기에 놓인 취업준비생 지원, 아동 돌봄 공공서비스 확대, 방과후 마을학교, 아이돌봄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놀자리'는 "청년 커뮤니티와 문화 활성화로 젊음과 열정의 당진을 만듭니다"가 모토다. 지역사회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추진, 퇴근 후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해너루 달빛 학습촌, 당진시 청년문화제, 청년 영화학교, 청년 전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당진형 청년정책은 어찌 보면 장황하게 보일 수도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과 같이 대표사업을 만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멎은 곳이 너무 많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청년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년문제는 종합처방약으로 치료해야 하고,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보약이 돼야 한다. 이것이 당진형 청년정책의 가치다.

당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 실험과 성공 및 실패 사례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자원이 될 것이다. 지역에서 공간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와의 관계망을 형성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청년들의 그저 좋은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되고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본 토론에서는 당진형 청년정책의 중점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직 단념을 방지하는 한편 전공 관련 역량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직업 경험을 제공하는 '맞춤형 청년인턴제' △청년 고용시장의 비정규직화 고착화로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용불안과 소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생활임금제'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추진배경

▣ 청년이란?

청년의 나이를 OECD,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자체 조례마다 제각기 규정(최소 15세, 최대 49세)



고용시장 진입나이, 고령화 추세, 도농복합도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진형 청년정책에 있어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

2. 추진체계 (비전 및 추진방향)

내일이 설레는 청년 당진

청년문제는 보편적 사회문제임
일자리, 보육, 문화 등을 아울러 추진

청년이 청년사업의 주체가 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사회적 경제 연계)



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통해 철저히 수요자인 청년 중심의 정책 추진

1. 추진배경

▣ 당진형 청년정책 “왜 필요한가?”

고용 없는 성장에 이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접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역대 최악의 상황

- 청년실업자 43만명(9.8%) * 전체 실업자 101만명 중 43%
- 구직단념 50만명, 잠재적 실업 40만명 포함 청년실업자 133만명

자녀 양육 부담과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출산
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는 상황

- 2016년 말 출산율 1.17명(OECD 34개국 중 최하위)

2. 추진체계 (추진전략)

▣ 설자리(제도,소통) 일자리(취업,창업), 살자리(주거,양육) 놀자리(문화,축제)로 체계적 추진



2. 추진체계 (추진전략)

□ 수요자 청년 중심, 4대분야 총체적인 사업 추진



일 자리

Youth Dangjin

사회혁신을 꿈꾸는,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당진만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 당진형 청년정책 “일자리”

직업경험제공 및 청년창업 지원 (맞춤형 청년 인턴제, 청년 창업지원센터 등)
희망 일자리 창출, 청년 CEO 육성

추진사업

- 「맞춤형 청년 인턴제」 실시
 - 목적 : 구직단념 방지, 전공 관련 역량 제고, 실질적인 직업 경험 제공
 - 대상 :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근무기간 : 1년(연장 없음) ※경력형성으로 민간일자리로의 진입 촉진이 목적
 - 임금 : 생활임금제 도입(시간당 7,703원 → 월 188만원)
 -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한 체감형 소득 보전 청년일자리 제공
 - 내용 : 전공(역량) 등 고려 경력형성이 가능한 市 산하기관 근무지 배치

□ 당진형 청년정책 “일자리”

추진사업

- 「청년취업사관학교」 개설·운영
 - 취업, 창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 진행(3개 과정 41명)
 - 6. 5~8. 4/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창업스쿨, 취업역량강화 교육
 - 사무직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산회계, 문서관리, 인사노무 등의 실무 교육 및 기업인사 담당자 멘토링 등
- 취업준비생(청년) 전용 도서관 설치 (11월 중)
 - 독서실 형태의 열람실 위주 운영 (도서관 휴일인 월요일 제외 주 1회 휴일)
 - 공무원 수험서, 자격증 관련 도서 등 취업준비 맞춤 도서서비스 제공

□ 당진형 청년정책 “일자리” 



추진사업

- 사회적 경제 청년 창업 특례자금 조성
 -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을 위한 특례자금 출연 동의안 승인(2017. 5월)
 - 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을 통해 당진시 출연 운영자금 2억4천만원 지원
- 「당진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장 소 : 당진 청년센터 내(2층) / 296㎡(교육실 + 코워킹공간)
 - 사업비 : 연 2억원 / 운영기관: 창업 전문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기 능 : 발굴~육성~사업화~사후관리까지 창업 전주기 지원



감사합니다



□ 당진형 청년정책 “일자리” 



추진사업

- 청년 창업농 적극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우리시 자체 공모사업 추진 시 청년농부 우대 (총점의 10% 이내 특별가점)
- 민간분야 「청년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 추진배경 : 비정규직 고착화, 최저임금 비현실화로 청년 근로빈곤층 증가
 - 대 상 자 : 소상공인 사업장 취약계층 청년(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등)
 - 재정의 수용성, 사회적 합의성, 법적기준 명확성 고려 단계적 확대추진
 - 지원내용 : 회사 임금과 생활임금(시간당 7,703원)간의 차액 시비 보전
 - 사 업 비 : 연간 1,549백만원(소상공인 사업장 취약계층 청년 근로자 604명)

토론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부장
前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최고전략책임자(CSO)
現 청와대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토론



현재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주요경력

- 2017 산림청 산림일자리위원회 위원
- 2012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획단
- 201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조직화 및 운영위원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참여
- 2007 사회투자지원재단 설립
- 2006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참여
- 2005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회의 조직화 및 간사
- 2004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 1998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설립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그 가능성

2017. 11. 16

문보경(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혁신을 보는 관점

사회혁신

사회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

사회혁신은 기술 및 산업 혁신까지 모두 포괄하여 “사람을 위한 (for), 그리고 사람과 함께(with) 하는 혁신” 으로 정의된다 (EC 2013)

‘혁신은 그 자체로 목적 혹은 어떤 문제들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Christiansen and Bunt 2012)

시민들의 자발성 뒤로 숨지 않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성

필요 환경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 결과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제도

사회혁신과 일자리

일자리 창출

- 자본에 고용되는 방식이 아닌 시민의 협동에 의한 자기(시민)고용 방식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 안정적이고 개인의 성장과 가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가능성과 현실성은 ?

협동조합의 경험을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현실성은 검증이 됨. 그러나 좋은 일자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현실성은 지금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검증되고 있으며, 대부분 미지수임.

좋은 일자리에 대한 단상...

좋은 일자리

정의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생산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남녀모두를 위한 기회(국제노동기구, ILO)

주요지표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 노동조건 /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 소득불평등 및 사회보장 / 노동기본권 및 대표성 (민주노동)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비교 한국의 수준 (2015년)

- 임시직 비율 - 5위 / 30개국
- 저임금 노동자 비율 - 20위 / 21개국
- 장시간 노동 - 33위 / 34개국
- 산재사망자수 - 3위 / 20개국
- 성별임금 격차 - 1위 / 22개국

산업변화에 대한 고려

서비스 산업의 증가

서비스 산업은 사업(체)과 개인을 위한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고 있음. 서비스 대상에 따라 서비스 분야는 단순 노무에서부터 지식 및 기술 기반과 정서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증가

감정 노동의 증가

대인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감정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업무상의 고통이 증가.

산업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노동관계법

돌봄 서비스의 증가로 돌봄노동 종사자가 증대하고 있으나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 발의(2017.9.01)정미 의원 대표발의) 또한 2016년 금융회사 콜센터 직원들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은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감정노동자보호법' 발의(2016.11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노동력 경쟁력 강화 기술

위험한 노동 영역을 보완)

노동의 완전 대체가 아니라, 노동과정에서 위험이 큰 분야의 노동을 기술과 기계가 보완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해 산재 예방.

취약한 노동력을 보완)

고령자들의 노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등 노동 숙련도가 미흡한 노동자들의 취약한 노동력을 기술과 기계가 보완해 생산력을 유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

취약한 노동력을 담보한다는 것의 다른 측면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도 함. 기술과 기계를 통해 종래에 충족되지 못했던 서비스를 해결해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그 가능성을 위해 ...

시민의 성장

시민 주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조와 책임)

공공재원에만 의존하는 왜곡된 민관 협력 극복

시민들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제도와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내는 시민 주도성 필요.(정부의 과잉 지원 예방)

비화폐 거래 활동을 통한 현금 보존 효과)

전일제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거리만으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비화폐 거래 방식인 품앗이 경제를 활성화 해 현금 보존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지역사회의 안정망 구축을 위한 공동체의 회복)

품앗이 경제 활동의 활성화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완성될 수 있음.

교육과 보육,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순환될 수 있는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과 공동체성 강화 필요.

정책과 연동 된 시장 안정)

특화된 시장 - 사회서비스, 자원 순환, 에너지 분야 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의 돌봄망 형성 등

사회 기술의 지원과 이전)

제품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강화(기술 이전)

비용 절감을 위한 대체 에너지 보급 및 지원(연료, 전기 등)

사회적금융 및 자산 안정화)

창업 촉진 -> 쉐어리피케이션 -> 상업용부동산정책개선
금융 접근성 개선, 시민상호금융 허용, 시민공유자산화

일자리 중심의 평가 극복)

시민들의 익한 경제 활동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일자리(일거리)에 대해 사회 가치 평가 필요

공정적 확보

관점과 환경



노동관계개선책

돌봄 노동자 및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선)
직장 중심의 고용-피고용 관계 형태만이 아니라 독립 노동, 조합원 노동 형태 등 다양한 노동형태를 제도로 보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보장 확대 관점에서 접근 필요

사회기술을 통한 서비스 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산재 예방)
제도적으로 산재 인정 대상이 확대되기 이전이라도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의 신체적 감정적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 도구 및 감정 측정 도구 등의 개발, 노동 과정 합리화 등

감사합니다.

토론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이승원 소장은 서강대 철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영국 University of Durham에서 철학 석사,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그리고 University of Essex에서 이데올로기와 담론분석으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을 맡고 있다.

이 소장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에서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연구와 함께 세계 민주화 운동 포럼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 선도센터 연구교수를 거쳐, 2014년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국제사업단장으로 '국제 사회적 경제 포럼 Global Social Economy Forum(GSEF)' 창립총회를 준비했다.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연구소 전문위원으로 생태 민주주의 연구를 진행했으며, 사회혁신리서치랩에서 서울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사회혁신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 있는 여러 연구프로젝트를 민관 산학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 혁신

발표자들의 깊은 성찰과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제시해주신 실행전략과 사례들에 공감하는 바가 큼니다.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지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은 분권화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의 분산/분권성은 한국 사회의 과도한 중앙집중적 구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자리라는 동력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합니다.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수평적 분산/분권화' 전략과 '시민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평적 분산/분권화는 단지 쪼개기가 아닙니다. 생태적 순환, 에너지 자립, 민주적 자치가 유기적으로 작동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동시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다양한 연결망을 통해 선순환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유지/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역량 강화의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과제가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내부의 전통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부 자본과 중앙의 계획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해왔습니다. 이처럼 '효율성'의 논리를 따른 결과는 가장 불안하고 나쁜 일자리와 지역 경제체제였습니다. 외부 자본과 중앙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지역 경제가 '수평적 분산/분권화' 차원에서 생태적 순환, 에너지 자립, 민주적 자치를 만들어 가는 데 외부 자본과 중앙 계획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은 지역 기반 연구조사를 통한 문제·필요·수요 발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기반 연구조사는 중앙 차원의 전문가 연구 이전에 현장의 최종 수요자/주민들 차원에서, 그들의 언어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방식의 민관·산학 협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한편으로 '리빙랩'이라는 사회혁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리빙랩은 사회혁신 차원에서 기존 문제의 해법을 찾는 새로운 정책 또는 사회적 제품을 생산하는 일종의 열린 공정을 의미합니다.

리빙랩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마을 공동체 활동, 조사 및 분석, 정부 정책 결정 나아가 비즈니스 R&D 모델에까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네덜란드 현장조사를 통해 배운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리빙랩은

1. 기본적으로 시민역량 강화(civic empowerment)를 최우선 가치에 놓는다
2. 1번 목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상상력과 실천을 동원한다. 기존의 어떤 장벽이나 제도도 시민역량 강화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

중요한 건 가치 우선의 열린 구조와 방식입니다. 그래야 가치를 실현할 모든 상상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리빙랩이 현실적으로 작동가능한 규모는 '지역'입니다. 물론 국가 단위의 리빙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서울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의 인구와 사회경제적 기반을 비교해보면 '국가 단위'라는 것도 대단히 탄력적인 사고임을 알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리빙랩'은 '협의체'라는 고정된 의사결정체를 명시하지 않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즉 리빙랩 그 자체가 '제한된 위원회나 제도를 넘어서 민관·산학 협치'인 것입니다.

어떤 과제나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려는 주체는 민이든 관이든 사회적으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회의에는 스스로를 이해당사자라고 생각하는 주체들이 참가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을 자체 보고서 등에 기반해 제안하고, 이를 회의에 모인 주체들이 협의하고 논의합니다. 여기서 관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집단의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유형이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제공, 도서관 서비스 등)

몇몇 협의체 위원들이 민관을 대표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새로운 안건이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주체가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참여자들이 합의하는 그 자체가 의사결정이고 실행력의 근간이 됩니다.

민관협의위원회와 이 위원회 운영조례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주장을 통해 논리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는 공교육과 사회적 관심도 필요합니다.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인문사회과학적 인식 지평이 리빙랩의 핵심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면 두 가지 차원에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사회혁신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지역 주민에서 시작하는 리빙랩 방식의 협의 과정은 위계적인 원하청 구조, 그리고 부처 간 장벽을 넘어 수평적 협력관계로서 민관·산학 협치에 기반한 지역 혁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회혁신 방법의 핵심인 '상상과 연결을 통한 새로운 자원의 창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리빙랩을 통한 지역 경제의 혁신 성장은 그 과정 자체가 시민역량 강화이고, 경제 민주화의 핵심인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의 기반이 되며, 나아가 시민 자산화가 시작되는 사회적 합의 틀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최선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현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현)

주요경력

2016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현)

2017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현)

2009 사단법인 수수팔떡 이사 (현)

2016 전국귀농운동본부 감사 (현)

2017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현)

2003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처장(전)

2016 아산풀뿌리여성연대 상임대표 (전)

초록

빛고, 짓고, 꿰어서 하나되는 혁신 그리고 일자리

메가트렌드 분석을 도입하여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를 15개로 도출하면,

①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②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③글로벌 윤리의제의 다변화, ④첨단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융복합화, ⑤디지털기술의 진화와 인터넷의 미래, ⑥글로벌 차원의 저성장 경제의 지속, ⑦글로벌 위기 이후 신경제시스템 출현, ⑧세계경제의 구조재편, ⑨도시화되는 세계와 메가시티의 출현, ⑩지역간 협력 및 지역통합, ⑪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⑫자원고갈 및 에너지의 미래, ⑬민주주의 진전 및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⑭국제분쟁 및 국제조직원지 급증, ⑮의학기술 진보 및 신종 질병 확산 등이라 할 수 있다. (충남연구원)

여기서 충남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대기업 중심의 의존 심화, 대중국 수출 의존도 가속화, 에너지 다소비 산업 집적(석탄 화력발전소 등), 양극화 등 갈등구조 심화, 다문화 가족의 증가, 농어촌 마을의 고령화 심화(65세 이상 인구) 낮은 재정자립도,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 등이다.

이상의 과제들을 지역에서 대안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한다면

1) 로컬푸드를 대안으로 한 먹거리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 얼굴(이력)있는 먹거리, 이동거리를 최소화한 먹거리,
-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감하는 먹거리, 화석연료의 소비를 최소화한 먹거리(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잡곡, 정육, 발효 가공 공장 등)

2) 재생에너지로 가꾸는 마을 경제 대안에너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폐기물, 해양, 수력, 풍력 등
- 에너지 자립마을(성대골 사례)

3) 마을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문화, 건강의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에 고향을 심는 사람들(송악동네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사례)
- 마을에서 주민 스스로 이루어지는 교육, 마을 내의 의료복지, 마을 내의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진행, 카페운영, 주기적인 마을 '놀장' 진행

4) 농촌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경관조성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농경사회 (농촌경관을 사랑하는 회원들 활동 사례)

5) 환경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실개천 살리기 등)

- 반딧불이 축제, 실개천 살리기, 조롱박 터널 만들기

그게 무엇이 되었든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내 순환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혁신이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을 넘어 이웃과 함께 도모할 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미래의 삶도 가능 할 수 있다는 의식들이 다행히 도민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는 척박한 현실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깨워 내려는 노력을 한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다.

어디에 살고 있는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도시의 과잉과 농촌의 결핍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넘쳐나는 것은 나누고 부족한 것은 서로 메꿔주는 삶의 방식이 바로 혁신일 것이고 그 결과는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다.